



VOL.8
재분고

20180806

1. 두만강 / 낮

철벽철벽 얇은 물을 밟으며 달리는 발. 열 명 남짓.

형제로 뵈는 돌을 제외하고 모두 정사복 차림의 사내들.

그들 웃기 사이로 남부권총이 보인다. *일본군 자동 권총 (1902~1945)

모두 강을 건너 괴목이 즐비한 갈대밭에 몸을 숨기고, 키 작은 동생이 국경너머를 가리키며 길 안내를 한다.

좀 떨어진 곳에서 오줌을 흘리며 이쪽을 흘끔거리는 키가 큰 형.

사내들 다시 이동하며 갈대숲으로 스며들고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남자만 남는다.

일본남자 : (어설픈 조선말) 이 동네 산다드니.. 길 잘 아네. 수고해따.

키 작은 동생이 사례금을 달라는 듯 손을 내민다. 저 너머 대륙 능선을 보던 일본남자,

일본남자 : (일본어) 촌놈, 비밀 하나 말해줄까?

작은 동생 : 일본말 모르지비...

일본남자 : (일본어) 예나 지금이나 우린... 조선은 나중에 없어. 저 대륙을 가기위한 징검다리일 뿐이지.

큰 형 : (오줌을 털며) 뭐이 말이 짧네. 날래 돈이나 주구 가라...

키 큰 형이 바지춤을 조이며 다가오자, 꾸러미를 뒤적거리던 일본 남자.

나눠가지라고 손짓을 하더니 꾸러미 통째 형제들 사이에 툭 던진다.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 미소를 남기며 갈대숲으로 사라지는 남자.

키 작은 동생이 빙글빙글 꾸러미 앞으로 달려가 쪼그린다.

큰 형 : 온 김에 고기나 잡고 가자우.

남자가 던진 꾸러미 안에서 콩가루 모찌를 꺼내 베어 물던 동생의 웃음기가 멎는다.

다가서는 형을 소스라치듯 쳐다보고,

작은 동생 : 형...

얼른 꾸러미를 품속에 숨기는 동생.

큰 형 : 새끼 욕심부...

강렬한 폭발!

CUT TO

불타는 괴목 아래, 피범벅이 되어 일어서는 형.

피 묻은 고무신 한 짝을 주워들고, 갈대밭이 떠나가라 괴성을 지른다.

2. 종로 / 오후

레일을 달리는 전차 안 시점으로 빠르게 스치는 경성 거리의 모습들.
 열다섯 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전차를 아슬아슬 피해 골목으로 뛰어든다.
 무교동 방향의 지름길을 가로질러 청계천으로 달려 내려가는 여자아이.
 재빨리 몸을 담가 온 몸을 적시더니 물을 뚝뚝 흘리며 뛰어 올라간다.
 여자아이가 달려간 곳은 불길에 휩싸인 정동 성당. *1910년대 카톨릭 교인들이 임시로 쓰던 성당.
 수십 명의 일본 헌병들이 정동 성당을 둘러싸고 있고, 헌병들에게 끌려 나온 신자들의 눈빛이 절망스럽다.
 사제복을 입은 신부의 목에 군도를 들이댄 헌병대장.

헌병대장 : (일본어) 헌금을 모아서 신민회에 자금을 대고, 감히 데라우치 통감의 암살을 모의 해?

흠뻑 젖은 몸으로 불길이 치솟는 성당으로 뛰어드는 여자아이.
 성당 깊숙이 들어가 불붙은 커튼을 떼어내고 문을 벌컥 열면,
 타오르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 죽은 듯 쓰러져 있는 남자아이가 보인다.
 득달같이 달려들어 옷에서 찢낸 물로 아이를 적시는 여자아이.
 아이를 들쳐 업고 한 몸처럼 묶더니 성당 밖으로 빠져나온다.
 바닥에 눕힌 아이의 입에 필사적으로 물을 떨구는 여자아이.

여자아이 : 장하야!...죽으면 안 돼, 눈떠 장하야~!

들려오는 총성!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신자들.

헌병대장 : (일본어) 빠가들! 이제 이 나라는 황국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말도, 글도, 이름도 바뀔 것이고, 왕도 바뀔 것이다! 황국신민으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면...!

보란 듯이, 신부의 목을 가르는 헌병대장의 군도. 순식간이다.
 아이를 안고 울부짖던 여자아이가 헌병대장을 향해 달려든다.
 그때,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는 작고 여린 손.
 깨어난 아이가 누이의 손을 굳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맞잡은 두 손 너머 활활 불길에 휩싸이는 성당의 종탑.
 붉게 타오르는 불길이 일장기의 붉은 상징으로 변해가며 화면 가득 펼쳐거린다.

3. 몽타주

일제 강점기 주요 사건들의 파노라마.
 음악에 맞춰 빠르고 리드미컬한 스냅.

-경복궁에 내 걸린 두 개의 거대한 일장기.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의 조인식.

「 1910년 한일 병탄조약. 조선은 공식적인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

-일제의 무단통치 기록사진.

「 식민지 근대화로 포장한 무단통치가 시작되었다. 」

언론탄압, 민족 신문 폐간, 토지수탈, 헌병들의 즉결처형, 군복차림의 교사 등등...

-어느덧 3.1 운동 풍경을 담은 기록사진들이 펼쳐지고,

「 1919년 3월 1일, 거리로 나섰다. 민족의 첫 비폭력 운동이었다. 」

-이어지는 참담한 기록사진들.

「 3개월간 시위자 7,509명 사망. 46,948명이 강제 구금되었다. 」

-처형장면을 비롯한 끔찍한 학살 사진들이 나열되고.

「 일제는 조선 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

-이전과 달리 연해주, 만주, 의열단 폭탄 테러 등 극단적인 사건들이 하나 둘씩 터진다.

「 결과는 정반대였다. 」

-스냅영상에 가속이 붙으며, 지도 곳곳에 붉은 점이 마킹, 점점 그 수가 늘어난다.

「 골머리를 앓던 일본은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선다. 」

-봉오동 전체 지도, 독립군 주둔지인 상촌 부분에 붉게 마킹.

「 무장독립군의 근거지인 봉오동 일대 소탕을 지시. 」

-철저히 제도화된 일본 병사들의 이미지.

「 백전무패의 악명 높은 '월강추격대' 에게 임무가 주어진다. 」

-무장독립군의 기록사진.

「 일본은 그들을 촌민으로 구성된 의병쯤으로 여겼다. 」

-무장독립군의 기록사진으로 서서히 클로즈업.

「 무장독립군이 결성된 건 1910년이였다. 」

4. 두만강 / 여명

갈대밭. (#1의 장소)

스산한 바람. 사내의 얼굴.

지난날 수류탄 파편이 스친 흉터가 두드러진다. 그 강렬한 얼굴 위로,

자막 『대한독립군 항 해 철』

뒤로 10여명의 사내들이 이른 여명을 배경으로 거뿔게 서 있다.

알 수 없는 등짐들을 메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마적단에 가까운 모습들.

그들 앞 일본군 국경수비대 초소 풍경. 보초 둘과 초소 내부로 언뜻언뜻 비치는 몇몇의 움직임.

자막 「1920년 6월 4일 오전 7시, 함경북도 온성 두만강 접경지 국경초소」

부하 하나가(이하 병구) 해철의 옆에 달라붙더니,

병구 : 오랜만에 왔더니 초소가 생겼네. 쪽바리 새끼들 남의 나라 땅에다 떡~ 성님... 그냥 무시하고 건넌까?

해철 : 오늘 기어코 불 땡긴다.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다..

병구 : 그 불을 꼭 우리가 땡겨야 돼? 명줄이 쇠심줄도 아니구, 추격대가 언제 닥칠지 몰라 웅? 여서 지체할 시간 없대니깐? 애씨 내말 듣고 있어?

해철은 대답 없이 초소만 물끄러미. 초소 앞. 보초1,2 잠담 중인데...

보초1 : (일본어) 고년 눈매가 참 괜찮았는데...다 좋은데 조선 년들은 말을 안 들어 쫓...(웃음) 그래서 남편 보는 앞에서 목을 쳐버렸지! (손날로 당수 치듯) 이렇게!

번쩍- 두꺼운 칼이 보초1의 목을 친다.

잘린 머리가 채 떨어지기도 전에 콧 움켜잡더니, 보초2가 돌아보는 순간, 내리친다.

빠각- 머리와 머리, 으깨진다. 갈대숲에 숨어서 지켜보던 병구. 오만상을 찡그린다.

병구 : 그냥 가재니깐.

벽에 붙어 수류탄 한 알을 꺼내드는 해철, 슬쩍 문을 열어 안에다 던져 넣는다.

병구 : 하나.. 둘...(와장창- 반대쪽 문과 창으로 헌병들이 혼비백산 튀어나온다.) 사겨역!

순간, 갈대 숲 사이사이 숨은 총구에서 불을 뿜는다. 순식간에 늘어져 뺨는 헌병들.

재수, 길산, 아가리 등 해철의 부하들, 장전하며 갈대 밖으로 걸어 나온다.

병구, 시신들을 스윽 훑더니,

병구 : (시신을 발로 툭툭) ♪다루마상가고론다~ 어이...

(그러자 ‘총 안 맞은 헌병’이 벌떡 일어나 달아난다. *병구는 일본어가 가능하다.)

(느긋하게 소총을 겨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탕- 총성을 들으며, 끼이익- 문을 열고 초소 내부로 들어서는 해철.

앓된 소년 헌병이 터지지 않은 수류탄을 쳐다보며 바르르 떨고 있다.

수류탄을 집어 들며 앓는 해철. 매섭게 소년을 본다.

의문/굴욕이 반반 섞인 소년의 눈. 의외로 기세에 눌리지 않는다.

해철 : (수류탄 곁에 새겨진 글자를 소년의 코앞에 들이민다) 읽어보라.

소년 : ...쿠라마스... (*くらます ‘속이다’)

해철 : (익살) 기래 구라다. 너덜이래 젤루다 잘 하는 거다.

소년 : (살기 등등)

해철 : 쌍통 구기디 말라우, 고조 홍계우문 되는 거지비. 끝날 때까지 쭈욱 지켜보라우.

화면가득, 못 볼 것이라도 본양 경직된 소년의 얼굴. 가져온 헌병시신의 피를 한손 듬뿍 묻히는 해철.
소년을 힐끔 보더니 벽면에 치덕치덕 바른다. 소년(이하 유키오)은 그 모양새 넋 놓고 지켜보고..
점차 고조되는 음악. 비로소 완성된 글자,

대한독립만세!

사운드 M

전투 · 독립의 봉화

5. 함경북도 나남 / 일군 19사단 사령부 / 밀실 / 낮

각종 섬뜩한 고문 기구들이 즐비한 밀실.
사지가 거꾸로 묶인 독립군 포로가 피눈물이 맺힌 눈으로 헌병복장의 고문관을 노려본다.
이때, 중위 계급장의 제복남자(쿠사나기)가 들어 와 검붉은 액체가 든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든다.

헌병고문관 : (일본어) 쿠사나기님, 그건 아직 생체 실험엔 사용하지 말라는...

느닷없이 헌병고문관의 목에 주사기를 박아 넣는 쿠사나기.
검붉은 액체가 몸속으로 밀려 든 헌병고문관의 몸이 통나무처럼 굳어진다.

쿠사나기 : (일본어) 미개인의 몸은 생체가 아냐, 마루타지. (괴식) 같은 조센징이라고 자백하나 받아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독립군 포로 보며) 어떠냐? 너희 조센징들은 나라의 독립이
목숨보다 소중한냐?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독립군 포로.
대기하던 헌병이 액체를 가득 채운 주사기를 쿠사나기에게 건네면, 독립군 포로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CUT TO

위풍당당 걸어 나가는 쿠사나기 주위로 펼쳐진 19사단 사령부.
허름한 건물 앞에서 초점 잃은 소녀들을 희롱하는 일본군들의 모습과
하얀 가운을 걸친 군인들이 생체실험도구들을 가지고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엄청난 수의 정예 병력이 신식 소총으로 사격연습을 하거나,
각종 중화기들의 강력한 화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모습들이 쿠사나기의 어깨 뒤로 당당히 스친다.
커다란 철 문 앞에 도착한 쿠사나기, 군복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들어서면,
두꺼운 칼을 든 제복남자가 조선 백두산 호랑이의 가죽(벌써 세 마리째)을 손수 벗겨내고 있다.

자막 월강추격대 대장 『야스카와 지로』 소좌

(일본어)

쿠사나기 : 놈들의 근거지는 봉오동의 후안산 일대와 상촌, 머리수는 일백, 월강추격대가 출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도 와해됐고, 대부분 도망을 쳤거나 러시아 국경으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로 : 사냥을 준비해!
 쿠사나기 : 수가 적어 기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을...
 지로 : (벗긴 호랑이 가죽을 걸치며) 여우보다 호랑이가 빠르고 그 호랑이를 잡는 건 제국의 군대다.
 대륙을 정복할 제국의 군대가 고작 여우 사냥 갖고...쯔쯔쯔..

이때, 안으로 들어서는 중위 계급장의 겐쇼, 머리를 조아리고,

겐쇼 : 모리 중대, 가미야 중대, 사단직속 중화기 소대, 헌병기동분대까지 월강추격대에 합류시켰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호랑이 아래 깔린 커다란 지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지로의 칼끝이 봉오동에 그어진 엑스 표시를 꿰뚫으며 내리 쏜다.

지로 : 이번엔 반드시 씨를 말린다. 봉오동은 항아리를 얹어 놓은 지형이니, 이곳 봉오동 상촌으로 흩어진 사냥감을 몰아!

쿠사나기: (놀라) 직접 가시는 겁니까?

지로 : 내 손으로 발부터 꺾질을 벗겨서 꺾질이 벗겨지는 걸 보게 할 것이다. 즉시 출병을 준비해!

6. 국경초소 / 낮

벽면 ‘대한독립만세’를 보고 있는 제복남자의 뒤통수.

초소 밖. 약 80여명의 남양수비대가 주변을 수색 중.

(목소리) : (일본어) 중위님 생존자가 있는데요, 갈대숲에 숨어있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보고 있던 제복남자, 초소 밖으로 나와 말에 오르고,

자막 남양수비대장 『아라요시』 중위

그 옆에 낮빛이 어두운 생존병이 서 있다. 계급으로 보아 오장이다.

*일본군의 계급체계는 일등병/ 상등병/ 병장/ 오장/ 군조/ 조장/ 소위/ 중위/ 대위/ 소좌/ 중좌/ 대좌/ 소장 순으로 나뉜다.

(일본어)

아라요시 : (하품) 놈들이 이동한 방향은?

생존병 : 강을 건너 고려령 쪽으로 복진하였습니다.

아라요시 : 우리하고 같은 방향이네...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다며?

생존병 : 나이 어린 일병 하나가 붙잡혀 갔습니다. 원래 37여단 동지대(東支隊)에 있다가 엇그제 이쪽으로 전출 온 녀석인데...

아라요시 : 몇 살인데?

생존병 : 열일곱입니다. 아버지가 꽤 높은 직급의 장교라는데, 녀석이 직접 자원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라요시 : 음....정보를 캐낼 요량인가?... (조장에게) 가자.

“이동한다!” “행군 시작!” 조장의 호령, 수비대원들이 생존병과 아라요시를 스치며 이동한다.

생존병 : 곧 야스카와 지로 소좌가 이끄는 월강추격대가 도착합니다.

아라요시 : 어찌라고.

생존병 : (당황) 예? ...그 합군하라는 전보가 있어서...

아라요시 : (언짢은) 우린 추격대와 별개로 중요 임무가 있어서 먼저 움직인다고 전해.

어수선 행군하는 남양수비대.

아라요시, 기다 말고 군마를 비틀어 생존병을 향해 소리친다.

아라요시 : 얼굴 봤어!?

생존병 : 예? 누구 말입니까?

아라요시 : (초소를 가리키며) 낙서한 놈!

생존병 : 예! 봤습니다!

아라요시 : 같이 안 갈래? 체면도 차릴 겸 보복해야지!

낄낄거리며 웃는 수비대. 아라요시, 생존병을 비웃으며 등을 돌리면,

생존병 : (작게) ..마주치고 싸지나 마라.

7. 숲 / 낮

무성한 수풀을 뚫고 나온 해철의 험악한 얼굴.

해철 : 쏏-

따르던 일행들 모두 멈춰 서자, 어디선가 수군수군 소리. 다수의 인기척이 숲 사이사이로 비친다.

모두 총을 고쳐 잡으며 초긴장 상태. 양손이 묶인 유키오까지 괜히 긴장한다.

해철이 살그머니 다가가 풀을 젖히더니 별안간,

해철 : 조오센징!!!

그러자 저쪽에서도 소리가 죽고, 해철을 보는 병구의 눈이 황당해진다.

갑자기 “으아아!!!” 함성. 삼과 도리깨를 든 촌민들이 우르르 튀어나온다.

해철 : (능글맞게) 워~ 워! 독립군이야 독립군! 허허허~

촌민1 : 하 놀래라 까딱했으면 칠번했시다.

촌민2 : (버럭) 이카다 사람 죽이갓시여...장난두 정도야지!?

병구를 비롯하여 부하들. 히죽거리는 해철을 흘려본다.

병구 : 그 인간, 고대로 파묻으쇼. 우리 암말 안하다.

잠시 여장을 푼 독립군들, 화면이 추레한 얼굴(촌민)들을 스친다.
어린 꼬마들이 유키오와 눈이 마주치자 제 어미의 품에 파고든다.

해철 : 보파리 들구 어디들을?

촌민1 : 그 월강인지 뭔지 때때 썩다 내려가야지 뭘! 허구헌날 조선사람 중국사람 개잡듯 잡혀가는 판에... 아 이번엔 작정하구 죽이러 온다는데 남아날 목숨 있잖어!?

촌민2 : 기래두 데짜 삼둔자춘 사람들은 제법 있을거외다. 게 사람들은 추수 전엔 절대루 움직이딜 안 해.
(한숨) 우리도 당장 먹구 살 일이 걱정이군기래... 껏껏하네.

촌민1 : (두루 살피며) 기린데 행색이랜 꼭 마적패 같꼬만...어디서들 왔소?

촌민2 해철의 *항일대도를 살피다 대번 눈이 휘둥그레져,
*중국 국민당이 일본도에 대응한 목적으로 제작한 군용검. 해철의 칼은 좀 더 크고 두꺼운 초기모델.

촌민2 : 혹시 저 우에 상춘훈련소.. 훈련조장 출신!? 맞네! (반갑다가) 만주에서 마적질... 한다고... 들었는데... 마적맞네..

촌민1 : 현상금도...만원...집이래 열채 값이 만원인데..

병구 : (헛기침) 참나...그거 다 쪽바리 새끼들이 성님 잡으려구 낸 헛소문이요. 현상금도 쪽바리 새끼들을 하도 때려잡아 싸니까 붙인 거고. 마적질로 끝장 봤음 진즉에 끝짱 봤지 요모양 요꼴이것썩? 허허허!!!

해철 :그만 가자우.

멀어지는 독립군을 지켜보는 촌민들, 내려갈 채비. 개중 20대 중반의 촌민 두 명(3,4)이 서로 눈치를 본다.
산길을 오르는 독립군. 뒤에서 “형님...” 부르는 소리에 해철이 돌아보면,
아가리, 재수 뒤로 조금 전 젊은 촌민3,4가 서 있다.

아가리: (눈 까뒤집어보고 손가락 두루 살피며) 뉘카리 시퍼렇게 살아있꾸 총 쏠 송가락 다 있쑤꾸마...

재수 : (촌민3의 머리를 쓰다듬는) **야은 올리 보리비래 내려오기 전이는 상춘 훈련소에 서났젠 허엄신디에...**

해철 : (퍽, 뒤통수를 갈기며) 간나 새끼, 알아먹기 쉽게 말 하라 하지 않았니?

재수 : (사투리를 억누르며 더듬더듬) 이놈은 보리 추수허래 내려오기 전까지 상춘 훈련소에 있었따꼬...

해철 : ...가던 길이나 가라우.

촌민3 : ...가는 길입니다.

돌아서 걷는 해철. 재수, 아가리가 아까 초소에서 수거한 총을 촌민3,4에게 나눠준다.

촌민3 : (헤벌쭙) 저 칼 차신분이 옛날에 아우 죽인 일본놈덜 끝까지 쫓아가서 싸그리 저승길로 보내버렸다는 그분 맞쵸? 만주를 주름잡는 조선 마적으로 명성도 자자하시고..실물이 훨 낫네..히히..

해철 : (못 들은 척 하지만, 씨익 쪼개지며 좋아하는 해철) ..해해..

아가리: (스리슬쩍 지고 있던 등짐을 촌민3에게 넘기며) 아가리라고 내 소문은 들어왔니?...훈춘 비적단 두목 아새끼 동꾸영에 총알 한쌈지 박아넣구 아리랑 불러제끼기 내 아이니...

촌민3 : (별 관심 없이 등짐을 짊어지며) 목직한 것이...이게?

아가리: 궁금해 말구 잘 지캐라. 목숨보다 귀한 기야.. 북만주서부터 한 달을 지구 온기다.

촌민4 : (재수 등짐 짊어지며) 그러믄 우린 인자 마적인규, 독립군인규?

재수 : 뭐가 더 좋으냐?

“독립군”이라고 대답하는 촌민3과 “마적”이라고 대답하는 촌민4, 히죽히죽 재수와 아가리의 뒤를 바짝 따르고,

8. 삼둔자 방어고지 / 낮

전경) 텅 빈 막사들. 마구간에 말 두필이 묶여 있을 뿐이다.

자막 『삼둔자 방어고지 / 정오』

타다 남은 장작을 해집는 발, 숨은 불씨가 이글거린다.

해철 : (OFF) 요젠 누구래 지키네?

아까 합류한 촌민3이 대답한다.

촌민3 : 장군 휘하에 총 잘 쏜다는 젊은 부장이 직접 자원했어요...이장하 1분대장이라고..

병구 : (막사를 뒤지며) 새끼가 빠져가지구 매복질 막 비우고.. 도둑 들면 우짤려고..

병구가 쓸 만 한 건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고 있다.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주섬주섬. 서로 갖겠다고 싸우기까지..
먹을 게 보이는 족족 주머니와 입안으로 우겨넣는 아가리. 촌민3 난감하다. “이 새끼들..도동놈들야.”

해철 : (장하의 책들을 뒤적뒤적, 영문 책들이 많다) 장하 이 아 새끼래... 어두르케 지내네?

촌민3 : 요즘 꽤 밝아졌는데... 조선에서 친누나가 온다구 강아지처럼 들떠서...

그 말에 부하들의 시선이 모인다.

해철 : 장하 누나래 와? 지금 옥살이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석방이래두 된 거네?

촌민3 : 예 아마도..

순간, 본능적으로 뒤를 뉘는 해철. 이어, 수풀너머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튀어나온다.

화면가득, 혈떡이며 입술을 파르르 떠는 촌민2. (아까 헤어졌던)

9. 삼둔자 촌락 / 낮

촌락이 자리 잡은 평화로운 황금들녘.

연을 날리며 달려가던 아이. 갑자기 멈추며 들판 너머를 보면,

추수를 앞둔 보리밭에 불을 지르며 촌락을 향해 다가오는 남양수비대들.

닥치는 대로 학살이 시작되고, 머리채를 붙들려 끌려가는 할멈. 입가에 피를 철철 흘리며 기절한 채 끌려가는 아이.

저항하다 그 자리에서 칼을 맞는 남자. 일본군들은 으레 해본 일처럼 구석구석 숨은 촌민들을 잘도 찾아낸다.

군마 위의 아라요시.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먼지를 쫓는다.

촌민들을 마을 중앙에 집결시킨 일본군들.

“촌장이 누구냐?” 는 고함에 맨 앞줄 반백의 노인이 일어선다.

아라요시 : (일본어) 이진성이란 자를 아는가?

통역 병 : 이진성이란 자를 찾고 있다..이진성을 아는가?

아라요시 : (일본어) 조선에서 테러자금을 모아온 그가, 오늘 후안산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들었다.

촌장 : (통역 듣고) 그루타문 후안산으루다 곧장 갈 게지비 어제 이리루 왔습 등.

그러자 촌장 옆, 할멈의 등에 칼이 박힌다. 촌민들은 비명조차 못 지르고 신음한다.

아라요시 : (일본어) 징검다리는 밟아줘야 뒷사람이 편한 법이지. 곧 월강추격대도 이쪽을 지날 거야. 뭐 결과는 똑같겠지만. 이진성이 이쪽을 지났나?

촌장 : (죽은 할멈을 보며) 도대체 그따위 말은 누가 해줍디까?

아라요시 : (일본어)조센징의 정보는 조센징에게서 듣지.

촌장 : (촌민들에게) 오차피 다 죽일거이... 있는 힘껏 달리시게.

말을 끝으로, 아라요시의 권총을 콕 붙들고 이마에 들이대는 촌장. 탕 - 동시에 혼비백산 흩어지는 촌민들.

아라요시는 손목을 콕 붙들고 굳은, 촌장을 떼어놓느라 애를 먹는다.

마을 민들은 일시나마 흩어지지만 결국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총을 맞거나 붙잡혀 참수된다.

학살은 도축처럼 무감하다. 처음 살을 베어보는 어느 신참병사는 신고식을 치르듯 새색시처럼 수줍게 칼을 휘두른다.

*목을 베는 컷 하나하나는 '실제 기록사진 속 인물 위치와 사진을 찍은 각도, 일본군의 얼굴표정(미소)' 등을 그대로 일치.

전경) 비명이 그친 적막.

얼굴에 튼 촌장의 피를 짜증스레 닦아내는 아라요시.

문득,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을 본다.

연줄을 따라 헛간으로 시선을 옮기는 아라요시.

산보하듯 흥얼거리며 헛간으로 다가가 권총을 겨누면,

연줄을 잡고 헛간에 숨어있다 돌담 곁으로 달아나는 아이. 묵음. SLOW.

가슴에 구멍이 난다. SLOW.

그때, 밭에 숨어있던 소녀가 절규하며 달려 나온다. SLOW.

병사들의 총구가 일제히 소녀를 겨누고... SLOW.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집어넣는 아라요시. 허리춤의 군도를 빼들고 소녀에게 다가선다... SLOW.

순간, 쉬익- 난데없이 아라요시를 가리고 있던 머리 하나가 터진다.

얼굴에 잔뜩 피를 뒤집어쓰는 아라요시.

달려온 소녀가 죽은 아이를 부둥켜안는다.

CUT TO

뒷산 큰 나무, 막 도착했는지 거친 호흡을 정리하며 척! 탄을 갈아 끼우는 사내.

거침없는 손놀림, 청명한 눈! 그 위로,

자막 『대한독립군 1분대장 이 장 하』

장하, 손가락을 입에 물고, 휘파람 신호를 휘어-

이번엔 반대쪽에서 터지는 수발의 총성.
마을 중앙 일본군들 추풍낙엽 나뒹군다.
몸을 낮춰 총성이 난 곳을 살피는 아라요시.

전경) 총성이 멈춘 곳. 바람에 흩날리는 수풀만... 휘이- 두 번째 휘파람 신호.

이번엔 마을 입구 쪽에서 수발의 총성.
우수수 쓰러지는 일본군들. 몇몇은 마구잡이로 총을 쏘대며 우왕좌왕.
우물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 기대는 아라요시.
휘이- 세 번째 휘파람 신호.
동시에 신호 소리가 난 곳을 직시하는 아라요시.
그 순간 탕 - 날아든 총탄이 코 앞 우물 틀에 박힌다.
튀는 돌 파편에 권총까지 놓치고, 따가운 이마를 벅벅 문댄다.
잇따른 충격에 우수수 쓰러지는 일본군.
장하의 총구 가늠자. 우물로 빠르게 클로즈업.
아라요시의 군모가 살짝 빠져나와 있다.

장하 : 쥐새끼.

손가락을 물고, 이번엔 길게 뿜는 휘파람 소리.
일본군들의 겁먹은 얼굴들 빠르게 스치고,
일순간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독립군. - 촌락 전체 전경.
앞산 칠 명 / 마을 입구 쪽 칠 명 / 옆 산 칠 명, ㄱ 자 형태 공격진.
방아쇠를 당기는 자들은 의외로 하나 같이 젊고 호리한 체격에 피부는 질다.(16 ~ 25세)
남양수비대의 대응사격은 단발에 끝나거나 사격 품도 잡기 전에 고꾸라진다.
장하는 우물 뒤에 숨은 아라요시를 주시하며 쏘 타이밍을 노린다.
정신을 가다듬는 아라요시는 고개를 빼고, 마을 후방 비어있는 길을 발견.

아라요시 : (일본어)(가리키며) 퇴각! 퇴각!

우르르 마을 후방으로 몰려가는 남양수비대.
재빨리 부하들 틈으로 끼어드는 아라요시.
장하의 총구가 아라요시를 집요히 따라가고, 능란한 속도로 장전과 발포를 가한다.
철컥 탕 - 철컥 탕 - 철컥 탕 - 말 그대로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틈을 비집는 아라요시.
그 덕에 줄개들만 픽픽 뒹구는 꼴.
남양수비대가 후방 입구를 벗어날 즈음, 갑자기 무리의 옆구리를 타격하는 무지막지한 충격.
길 숲에서 돌연 터지는 충격에 옆구리가 끊어진다.
뒤로 남은 일본군은 순식간에 전멸.
의아한 얼굴로 방금 충격이 터진 장소를 살피는 장하.
해철의 모습이 언뜻 비친다. 클로즈업.
장하의 차가운 눈에 빗장이 풀리며 따뜻한 생기가 돈다.

10. 삼둔자 촌락 후방 - 숲길 / 낮

옆구리가 꿰어져 졸지에 맨 뒤가 돼버린 아라요시. 조장 1명과 병사1,2 합이 넷이 남아서 도주 중이다.
저 앞, 남양수비대 20여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는 게 보인다.
그때, 바로 옆 수풀에서 튀어나오는 해철, 하필 병사1,2가 겨누고 있던 총구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아닌데 싶은 해철, 졸지에 죽게 생겼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날아든 탄에 벌렁 뒤집어지는 병사1.
연이어 날아든 탄에 병사2도 꼬꾸라진다.

CUT TO

나란히 서서 탄피를 털어내는 장하와 병구.

장하 : 해철이 형 사격 솜씨 여전하지?

병구 : 어 여전해.

CUT TO

아라요시와 조장의 뒤를 쫓는 해철. 철컹- 총구를 겨누더니, 탕- 빗맞고,
둘 다 움찔 놀라는데, 탕- 또 빗맞는다. 심지어 탄을 갈다 탄알을 놓쳐 허둥대는 해철.

아라요시 : (일본어)(홀깃홀깃 보더니)빠가다 저거. 잡아라.

멈추는 조장, 멋스럽게 군도를 뽑아 해철에게 맞선다.

해철 : 쟁쟁할 와 이리케 안 맞간? 난 아무리 봐도 요거이 안 맞아.

(장하) : 칼 솜씨는?

(병구) : 것도 여전하지 뭐...

총을 팽개치는 해철, 손에 침을 튜 뱉더니 항일대도를 뽑아든다.
숨을 돌리며 건다시피 하는 아라요시. 창강- 소리에 힐끔 돌아본다.
일합에 조각이 난 군도와 조장의 머리가 데구르르...나란히 구른다.

아라요시 :

어느덧 미친 듯이 달리는 아라요시. 바짝 붙어 후려칠 듯 쫓아오는 해철과 눈이 마주친다.
군도까지 버리며 달아나는 아라요시. 가까스로, 가까스로,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
멈춰서는 해철.

전경) 저 멀리 달아나는 남양수비대.

자막 『6월 6일 삼둔자 - 남양수비대 60여명 사살.
아라요시는 잔병 20여명과 도주』

11. 삼둔자 촌락 - 학살 후 / 낮

해철, 장하, 독립군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촌민들... 참담한..

자막 『삼둔자 촌민 19명 사망』

뒤늦게 끌려 와 학살현장을 마주 한 헌병소년 유키오.

핏덩이가 된 동생을 부둥켜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는 소녀(이하 춘희)의 모습을 눈뜨고 바라보지 못한다.

드드드드~ 거친 말발굽 소리들이 춘희의 흐느낌을 짓밟고 밀려들며...

병구 : (해철에게 다가와) 성님, 추격대 놈들이 사십 리 밖까지 왔다는데?...

12. 두만강 / 낮

강가에 앉아 술을 홀짝이며 찌를 바라보는 중국인 낚시꾼. 문득 수면에 시선이 맞는다.

자글자글 끓는 수면. 어느덧 앞을 보는 낚시꾼의 입에서 삼키지 못한 술이 주르륵...

강둑 언덕을 넘어 차아아 물보라를 피우며 강을 밟는 수십의 군마 다리.

기마부대가 선봉으로 전진. 강의 허리가 부서지며 허연 거품이 인다.

물보라 너머로 부각되는 인물.

칼같이 각이 잡힌 제복을 걸친 월강추격대 대장 야스카와 지로 소좌.

이하 쿠사나기, 겐쇼, 사토 외 각 조장들이 스치고,

그 뒤로, 손에 묶인 밧줄이 말과 연결된 #5의 독립군 포로. 개처럼 끌려가다 휘청 쓰러지고,

얼굴을 가린 두건을 벗겨내고 방향을 물어보자 턱짓으로 고려령 방향을 가리킨다.

지로를 비롯한 기마대가 강을 건너고, 나머지 육로 병이 2열로 정확히 줄을 맞춰 국경을 넘는 광경.

남양수비대원 달리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에 각 잡힌 제복들.

월강추격대가 도강하는 모습을 바위 절벽 나무위에서 은밀히 지켜보는 해철의 부하 길산.

낚시꾼 : (중국어)(OFF) 여긴 국경이요, 일본군은 허가 없이 못 들어옵니다.

썰렁! 휘두른 칼날에 낚시꾼의 잘린 목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간다.

칼을 채우며 말에 오르는 사토, 말에 연결된 독립군 포로를 끌고 지로의 뒤를 따르고,

(일본어)

지로 : 국경 수비대장? 그깟 놈이 감히 내 합군 명령을 어겨?

겐쇼 : 아라요시 중위는 작년 조선에서 일어났던 3.1폭동(3.1운동)때 만세를 부르는 폭도들을 진압하는데 적잖은 공을 세운 잔데, 독립자금 징수대를 소탕하는 특별임무를 띠고 후안산으로 진군했습니다.

쿠사나기 : (조심스레) 사실 그는, 월강추격대의 지휘를 청했다가 거절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경험이 없던 이유로 군에서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본대 편성이 아니꼬운 것 같습니다.

지로 : (피식) 토끼 피를 묻히고 여우를 상대할 수 있나. 쿠사나기!

쿠사나기 : 하이!

CUT TO

행렬과 찢어지며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쿠사나기 기마부대.

지로 : (일본어)(OFF) 지금 즉시 전위대를 끌고 가서 고려령과 후안산을 살펴보고, 아라요시를 만나거든 합군을 지시 해!

13. 삼둔자 촌락 - 수습 / 낮

뺨- 맞고 나자빠지는 남양수비대 군조.

생포한 일본군 포로 셋을 노려보는 해철, 장하 등 사나운 눈빛들.

마을 민 시신 일부를 끼워 맞추는 소년병(이하 개똥이)의 표정은 슬프다 못해 공허하다.

군조 : (일본어) 많은 조선인들이 제국과 협력해 영예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네 놈들은 뭐냐?
지금이라도 투항하고 제국에 협조한다면...

병구 : (쑥쑥) ...말이 안 통하니 이길 수가 없네. (일본어) 독립군들이 줄로 보이냐? 확!

군조 : (일본어) 독립군? (비웃음) 미개한 촌놈들 주제에... 카악! 똥!!!

남은 포로들도 덩달아 가래를 뱉어내는데, 누군가 뱉은 가래가 하필 해철의 발등에 떨어졌다.

해철 : 야...입장 딱 하니 바까농구 생각 해 보라..느 집에 웬 놈이 시퍼런 칼 들구 들어와서 대가리 디밀구
밥두 같이 먹구, 느 자식새끼 까지 지 새끼 양 얼쓰구..느 마누라두 옹? 막 얼쓰구...한다는 소리래...
같이 잘살아 보세...기카른 서방노릇 되간니? 가만히 있어 되잖냐구??

해철이 군조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휘적거린다.

군조는 당황하여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만있어보라”

해철 : (휘적휘적하다가) ... 어?! 야... 느?!
병구 : (일본어)(통역) 너 불알 없구나.

포로들까지 군조를 뺨히... 흔들거리는 눈빛들.

군조는 허리를 원위치 시킨다. (잘 찾도록)

해철 : 어 있긴있구만 기래....마누라구 아새끼구 눈 뜨구 내줄 사내가 어데 있갔네 ?! 짐승두 기리케는
살디 앓아....나라 팔아먹은 아 새끼덜은 짐승만두 못한 놈들이다 이 말 이디...통역 하라우.

병구 : (일본어) 불알 가져간다.

해철 : (뭘 통역이 그렇게 짧아? 하는 눈으로 멀뚱히 병구를 보다가) ?...

꼬집어내는 해철. 군조는 그대로 엎드려 졸도.

알을 버리고 묻은 피를 군조의 등에 닦으며 일어서는 해철.

가래가 묻은 발을 포로들 앞으로 척 내민다.

밥그릇에 모인 개처럼 정성껏 신발을 닦아주는 포로들.

뒹던 포로 하나가 다가서는 그림자에, 힐끔 고개를 들다가 벌러덩.

덩달아 사색이 되는 포로들.

역광) 포로 시점, 피 묻은 제국의 군도를 들고 거명게 선 독립군들.
장하가 내뱉는 말을 병구가 일본말로 통역한다.

장하 : (날카롭게 쏘아보며) 후안산 징수대 토벌... 그게 니들 임무야?

포로1 : (일본어)(벌벌, 끄덕끄덕) 네, 조선에서 독립자금을 모아온 ‘이진성’이란 자가 오늘 이쪽을 통과한다고 들었습니다.

병구 : (일본어) 정보는 조선 첩자한테 얻었고?

포로1 : (끄덕끄덕)

병구 : (한숨) 하... 나라 구하기 짝세다... 친일새끼들이 더 해 아주...

장하 : 이진성이 확실해? 그럼 혼자가 아닐 텐데?

INS) 어두운 찻집. 구부정한 남자의 등과 테이블 위의 꾸러미.

포로1 : (일본어)(OFF) 그 이진성이라는 자가 작년 3.1폭도로 붙잡힌 여자 하나를 막대한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켰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순사가 꾸러미를 열어 돈다발을 확인하더니 남자를 향해 끄덕인다.

병구 : (일본어) ..여자는 무사하고?

포로1 : (일본어)(끄덕) ...별고 없이 같이 국경을 넘은 걸로 아는데, 확실치는...

장하가 권총에 탄을 채우는 중이다.

해철 : 야...오늘 화자를 다시 보는 구나야~

장하 :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조는 후안산으로 간다.

말을 끝내고 포로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하,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해철이 일본군들에게서 뺏은 소총에 탄을 채워 살아남은 마을 민들에게 건네준다.

해철 : 원한 쌓인 만큼 돌려주오. 죽이든 뭘 하든 하구 싶은 대로...기다멘 잠시 피해들 있구..

피와 분노로 얼룩진 마을 민들, 소총을 겨누며 포로들을 둘러싼다.

포로 하나가 극악의 공포상태에 빠져 오줌을 지린다.

포로1 : (조선말이 불쑥) 살! 살려주시오...제발...저는 조선사람...임니다...

느닷없는 조선말에 어리둥절한 분위기. 그것도 잠시,

병구 : (먹살을 콕) 개새끼! 니가 조선인이라구? 그럼 엄니하고 어무이하고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이야?

포로1 : (막상 대답하지 못하고 헛갈리다가) ...엄무니...

병구가 걸어차자 펍- 넘어가는 포로1.

병구 : 쪽바리 새끼가 어디서 아리따운 조선말을 어설피게 배워 갔구...

한편, 손에 칼을 쥐고 어디론가 향하는 개똥이. 너머로 유키오가 보이는데,
개똥이의 뒷덜미를 잡아 채 해철이 개똥이에게 유키오의 호송을 맡긴다.

해철 : 죽이면 안 되는 포로 아새끼야. 느가 말아서 책임지고 호송하라우.

14. 촌락 후방 숲길 / 낮

해철과 장하를 비롯한 소수 독립군. 후안산을 향해 이동 중.
장하와 어깨동무를 한 해철, 오랜만에 친동생을 만난 것처럼 들떴다.

해철 : 아까 쪽바리 새끼 두 놈 자빠뜨린거 네래 맞다? 역시 나 살래 준건 장하 너 뿐 이구나 야..기리나
저리나간에 놈들을 상촌 까지 끌구 간담서. 월강추격대 아새끼 덜이 얼마나 오는지는 알구 있네?

장하 : 상관없어. 상촌까지 충분히 끌구 갈 수 있어.

해철 : 오늘 기어코 불을 당기라 하신 것두, 포로 하나 잡아서 끌고 다니라 하신 것두, 다 놈들 유인하려는
장군님 작전술이라는 거 아는데, (걱정) 고조...관두는 게 어떠카쎄. 병력도 얼마 안 되고, 애꿎은
양민들까지 자빠지디 않았네.

병구 : (거들며) 것두 그거고, 우린 후안산 고지에 가서 (촌민3이 멘 등짐을 가리키며) 저걸 넘기고, 이진성이
모아 온 독립자금을 상해로 전달해야 돼. 그게 임무야..우리도 돕고 싶지만 그쪽두 바닥 난 자금
때문에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걸음을 멈추며 해철의 손을 치우는 장하. 실망으로 굳었다.

장하 : 다시 내려간다고?

해철 : 다들 자금난이 말이 아이다..싸울 형편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 오는 놈들은 저 피라미 같은 남양소
아 새끼들하구는 냄새부터가 다르다. 이거이 자살 행위야. 너두 누이 데리구 곧장 상촌으루 피하라.
싱겁게 웨질 순 없디 않네. 형말 들으라우.

아까 해철이 집어던진 소총을 부하에게 건네받는 장하. *아라요시 쫓던 중 팽개친

장하 : (소총을 살피며) 조선도 알고... 일본도 아는 걸... 형은 병신처럼 왜 몰라.

인서트) 딸각딸각, 노리쇠에 탄피가 걸려 고장상태.

장하 : 여긴 마지막 조선이야.뺏기면!!! (볼트를 탁- 치자)

걸린 탄피가 튕기며 해철의 이마에 알뜰게 부딪힌다.

장하 : (해철에게 소총을 던지며) 전부 다 끝이야. 더 이상 자금지원도 없다고..다들 목숨 내 놓고 싸우고 있는
판에 전전궁궁 도적질이나 하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줄 바보가 있을까?

해철 : 야, 누가 도적질을 한다고 그래?

장하 : 징수한 독립자금 받아 갖고 뭘 거라는 소문 있던데, 누가 알아? (병구와 부하들을 훑으며) 그 놈의
마적 근성 어디 갔겠어?

해철 : 야, 이 아새끼들이래 차카게 산 지 오래됐어 야, 기카고 이 아새끼들 독립군이라고 이름 붙여 준 거
장군님인 거 알면서 그런 소릴 하니?

해철과 병구를 싸늘하게 외면하며 빠르게 앞서 걷는 장하.

병구 : (어이없는 눈으로) 대륙소문이 아리랑 아라리요로구나~ 그나저나. 성님 방금 총 맞았소..

해철 : 누이 땀시 뵈죽 한거니깐...팬스리 건드리디 말라우

병구 : ...다 끊어놓고...

장하 뒤로 따라붙는 해철.

앞서 걷는 장하의 얼굴엔 걱정과 수심이 가득하다. 그 위로,

(목소리) : 언제나 좋아.. 조선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15. 과거 / 산봉우리 어딘가 / 멀리 해가 지는 모습

드넓게 펼쳐진 산야. 저 멀리 힘차게 뻗어나간 조선 땅의 산맥과 우뚝 솟은 백두산의 봉우리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서 있는 사내의 뒷모습. #5의 독립군 포로다.

독립군 포로 : 저기...국경만 넘으면 백두산인데...

(목소리) : 고향 생각나십니까?

독립군 포로 돌아보면, 정성껏 흙을 덮어 무덤을 만들고 있는 장하.

갓 만들어진 봉긋하게 솟아오른 무덤이 처량하다.

독립군 포로 : 나다마다. 지금쯤 뿌려 놓은 감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텐데...왜놈들한테 땅 다 뺏기고 병저
누우신 우리 엄님 일어 나셨을라나 모르겠네...뺏긴 땅 찾아 드린다고 떠나 온 지...벌써 두 해가
넘어가는데..

장하가 독립군 포로 옆에 와 서면, 세찬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세차게 흔들어댄다.

독립군 포로 : (손으로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바람이 바뀔 때가 됐는데...

장하 : (보며) 이번 임무...후회하십니까?

독립군 포로 : (피식) 후회는 무슨..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그리운 마음이라도 저 국경 너머 고향 땅이 있는
남쪽으로 휘이 휘이 날아가지..

장하 : (총을 걸치고 일어서면) ...

독립군 포로 : 그러는 너, 죽는다는 걸 알면서 왜 이번 임무에 자원 한 거냐?

장하 : (말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물끄러미) ...

세찬 바람에 물결치는 억새들, 회한에 잠긴 눈으로 억새들을 내려다보는 장하.

누군가 눈앞에 아른 아른 서 있는데...

16. 과거 / 들녘 / 낮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들녘.

검게 그을린 상반신을 드러낸 채 커다란 목총을 들고 서 있는 어린 장하.

장하의 누이가 어딘가 떠나는 듯, 아련한 눈으로 장하를 보고 있다.

누이 : 잊지 말고 엄마 말 항상 기억해...절대 부끄럽게 살면 안 돼!

소중하게 싸맨 손수건을 장하에게 건네는 누이, 손수건을 펼치자 누런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다.

누이 : 너 커서 장가갈 때, 네 색시 주라고 엄마가 남기신 유품이야. 이제부터 네가 잘 간직해.

장하 : 나한테는 누나가 엄마야. 나중에 색시 생기면 누나 손으로 끼워 줘.

눈물이 그렇그렇...누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장하.

이때, 발 앞으로 날아드는 수류탄. 소스라치듯 놀라는 장하.

누이를 세차게 밀쳐내고 배를 깔고 엎드리며 수류탄을 품는다.

잠시 후, 수류탄은 터지지 않고, 꽃밭 어디선가 킁득대는 소리들.

꽃밭 여기저기 숨어 있던 십여 개의 머리들이 쑥, 쑥, 나타나며 휘파람을 불어제친다.

장하처럼 모두 큰 목총을 든, 검게 그을린 독립군 훈련병들.

피식피식 웃으며 나타난 훈련조장 해철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장하를 발로 밀어내며 구리수류탄을 집어 든다.

해철 : 이 미친 아 새끼래 수류탄 같은 거 날라들면 어찌라고 했니? 옆에 누가 있든 무조건 몸 날려 피하라 하지 않았쎄? 느 죽고 옆 사람 살린다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아니? 명심하라우! 옆에 사람도 똑같이 죽는 기야. 살아도 그 순간부터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매한가지야!

“훈련 안하고 뭐 해 새끼들아, 빨리 전진 하라우!” 해철의 고함에 전진자세로 멀어지는 독립군 훈련병들.

해철 : 문제 많은 아 새끼래, 느는 당분간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우. (슬쩍 누이를 의식하며 씨익 웃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니까 성이라고 부르고.

부축해 일으키는 누이의 손을 뿌리치는 장하, 집어든 돌멩이로 돌아서는 해철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날린다.

웃음 띤 얼굴로 돌아보던 해철, 웃음 띤 얼굴 그대로 펍! 기절.

17. 골짜기 / 낮

앞서 걷는 장하의 뒤통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힐끔거리는 해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빠르게 걸어가는 장하.

해철 : 장하 저 아 새끼래 분명 뭘 꿰뚫어보고 있다...

장하 옆으로 슬슬 따라붙는 해철.

해철 : (괜히 눈치) 화자는 여전히 이쁘겠지?~

장하 : (무시) ..

해철 : 내 오늘은 기필코 한 번 안아볼테니 두고 보라~

괜히 피식 피식 웃다가 해철의 헤드락에 잡히는 병구.

병구 : (헤드락을 빼려 용쓰며) 오이 고조~ 한 눈에 반했오~ 아!!아파! 장하야 썩! 빨리 한발만 썩! 아악!

듣지 않고 이미 저만치 움직이는 장하.

18. 삼둔자 촌락 / 낮

쌓인 남양수비대 시신 옆으로 검은 말다리가 다각...다각... 프레임 인.

삼둔자 촌락에 도착한 월강추격대 본대.

입을 꼭 다문 채 둘러보는 지로.

겐쇼 : (일본어) 아라요시 중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로의 은근한 시선이 바닥의 정체모를 붉은 경단에 쏘인다. 군조의 그것.

지로의 눈짓을 받은 사토가 독립군 포로의 두건을 벗겨낸다.

지로 : (일본어) 후안산 마을로 가는 지름길을 가리켜라.

부신 눈을 찡그리며 지름길을 가리키는 독립군 포로.

산송장 같은 그의 손가락이 후안산 마을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면...

19. 후안산 마을 / 석양

어슬해진 길을 쫓기듯 걷는 사내. 직접 기운 신발과 덧댄 무릎, 낡은 배낭, 눌러 쓴 모자 행 아래 수척한 얼굴.

자막 『독립군자금 조달책 이 진 성』

그 옆에, 남장을 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인이 진성의 뒤를 따른다.

불안한 듯 마을을 휘 둘러보는 진성. 썰렁한 풍경.

언덕배기에 희미한 등불 하나가 화면에 잡힌다.

20. 최노인 집 / 석양

진성, 집 마당에 들어서서 겨우 목소리를 내어,

진성 : 아주바이 계시오..

그러자 방문이 벌컥! 최노인이 방에서 고개를 빼고 동그란 눈으로 이쪽을 보더니,
버선발로 뛰어 나와 진성의 손을 잡고 흐느낀다.
방 안에서 뛰어 나온 또 다른 징수대원들. 안도의 숨들을 쉰다.

최노인 : 고생했소 고생했소... (를 연발한다) 일행이 있다고 들었는데, (남장 여인을 의식) 이쪽이...?

진성 : (잠시 머뭇) ...예...신흥강습소 출신인데,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옥에 갇혔다가 독립군에
합류하려고 상촌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갑게 맞잡은 손들. 저마다 눈가가 뜨끈뜨끈하다.

INS) 가까운 산언덕. 두꺼운 말 다리. 지켜보는 그림자.

21. 최노인 방 / 밤

진성이 데운 차를 호로록 마시더니, 배낭에서 화폐가 가득 담긴 상자를 꺼내놓는다.

최노인 : 어찌 쉬지도 않고 매번... 잠도 제때 못 주무시고...몸도 많이 상했겠소...

진성 : (말을 머금다가) ...이번에 모아 온 독립자금은 만주 쪽 단원들한테 직접 넘기라고 들었는데...
만주 쪽 단원들은 안보이네요.

최노인 : 오늘쯤 도착하기로 했는데... 좀 늦네. 내일 오려나.

징수대원2 : 그 마적놈들 말입니까?

징수대원3 : (발끈) 그놈들 독립군의 수치예요. 언제부터 독립군이었다고 창피해서 원! 솔직히 전 찜찜합니다.
놈들이 이걸 제대로 전달 안하고 떼먹는 날에는... (진성을 보며) 말쑥 도루묵 아이요.

최노인 : 어허. 생긴 건 그래 생겨 먹었어도 일을 그르친 적 없고 실력도 좋은 이들요. 배우고 가진 자들이
왜놈 첩자 질이나 하는 마당에...

그때, 촛불 앞에 있던 남장 여인이 얼른 초를 붙어 끄고, 모두가 쉼-
최노인과 진성이 소리 없이 문 옆에 바짝 붙어 밖을 살피는데,

최노인 : 이보오...

순간, 방문을 발겨내며 수발의 총알이 날아든다.

진성이 재빨리 그를 잡아당겼지만, 총에 가슴을 맞은 최노인.
독립군자금이 든 상자를 가리키며,

최노인 : 상촌에 있는...장군께... (숨을 거둔다)

벌컥- 필사적으로 뒷문을 박차고 뛰쳐나온 진성과 남장 여인, 징수대원 넷.
앞에 있던 일본군 둘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뒷산 숲으로 몸을 던진다.

집 주위에 포진해 있던 일본군들.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쫓는다.
척- 방안으로 들어서며 최노인의 시신 앞에 멈추는 군화.
번들거리는 칼자루. 쿠사나기다.

22. 달밤의 숲 / 밤

탕 - 첫 번째 총소리가 울리고 도주하던 징수대원1이 엎어진다.
징수대원2가 멈춰서 돌아보면, 탕 - 두 번째 총소리. 징수대원2 옆으로 총탄이 스친다.

징수대원2 : (다급해져) 가요! 어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진성과 남장 여인, 징수대원3,4.
탕 - 세 번째 총소리. 칼을 들고 달려들던 징수대원2가 풀썩 쓰러진다.
안 되겠다 싶은지 징수대원3,4가 멈춰 선다.

징수대원3 : (진성에게) 제가 막을 테니까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징수대원4 : 절대... 뺏겨선 안 돼요.. 아셨죠?!

끄덕이는 진성. 그대로 고개를 묻은 채 남장 여인과 뒤돌아 달린다.
쿠사나기, 쓰러져 신음하는 징수대원1을 발견.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가하려는 순간,
징수대원3이 수풀에서 튀어나와 칼을 세우고 달려든다.
하지만, 어디선가 날아든 총탄에 근처에도 못 오고 뒤집어진다.
넘어진 징수대원3이 우악스럽게 일어나 다시 칼을 세운다.
또 한발의 총성이 팔목을 뚫고 칼을 튕겨낸다.
날아든 세 번째 총알은 이마에 박히며 쿠사나기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다.
쿠사나기와 조금 떨어진 곳, 좌우측에 포수 서넛이 각자 탄을 갈고 있다. (월강포수)
그때, 징수대원4가 튀어나와 쿠사나기를 향해 돌진해온다.
쏘지 말라는 제스처를 하는 쿠사나기. 스르렁 군도를 뽑아 민첩하게 베어낸다.
달빛에 칼날이 섬뻍섬뻍...
멀찌감치 몸을 피하던 진성과 남장 여인. 가까이 있던 일본군 둘에게 발각된다.
“저기대!” 총성을 터트리며 쫓아오고, 진성의 지친 발걸음을 남장 여인이 잡아 이끈다.
칼에 묻은 피를 획 털어내는 쿠사나기. 산보하듯 숲을 거닌다.

쿠사나기 : (일본어) ♪달이 밝으니 밤도 잠을 설치는구나.

필사적으로 숲을 달리는 남장 여인과 진성.
그때, 갑자기 튀어 나오며 진성과 남장 여인을 덮치는 검은 그림자. 우거진 숲으로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
구름이 달을 삼키고, 컴컴해진 수풀 앞.
한걸음, 한걸음 시커먼 수풀을 향해 다가서는 쿠사나기, 이내 멈춰 선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월강포수 십 수 명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월강포수1 : (일본어) 중위님 무슨...

쿠사나기의 손짓에 모두 멈칫. 쿠사나기의 손에는 남장 여인이 떨어트린 모자가 들려있고..

쿠사나기 : (일본어)어두워서... 추격이 어렵다.

모두 부스스 퇴각하며 움직이고.

쿠사나기는 마지막으로 이쪽을 흘깃 보곤 수풀을 빠져나간다.

달이 구름을 빠져나오고, 수풀 어둠 속, 총구를 겨누고 대기 중인 장하와 독립군들의 망막을 스친다.

그 안쪽에 땀을 뻘뻘 흘리는 진성의 입을 틀어막은 해철.

그리고 머리가 길게 늘어진 채 비로소 얼굴이 드러난 남장 여인이 숨을 헐떡이고 있다.

갑자기 피이이~ 하늘로 밝은 조명탄이 솟구치고,

23. 후안산 마을 / 밤

막 도착한 월강추격대 본대.

후안산 마을의 동서남북으로 피이 피이~ 요란스럽게 조명탄을 터트리며 사방을 밝힌다.

24. 숲 언덕 / 밤

후안산마을의 조명탄 불빛을 내려다보는 해철과 독립군들.

장하가 남장 여인을 의아스럽게 살피며 진성에게 묻는다.

장하 : ...아재... 우리 누나는?

조명탄 불빛에 반사된 여인이 장하의 누이가 아니라서 해철은 벌써부터 불안하다.

자현이 들고 있던 배낭에서 봇짐 하나를 꺼내드는 진성. 겨우 입을 떼다.

진성 : 작년 3월 1일 만세 부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울음이 터지고) 이 씨글놈들이... 한데 모아놓고 태워서리... 전부 고대로 담아가꼬 모셔왔다...여 안에 누이도 있다...

조심스레 봇짐을 건네는 진성, 잔뜩 굳어진 장하가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배낭에서 고이 접은 무명천을 꺼내는 남장 여인.(이하, 자현)

진성 : 여기...임자현이라고...3·1 운동 때 만세 부르고 화자하고 같이 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자현이 무명천을 펼쳐자 시커멓게 불에 탄 비녀와 머리핀, 가락지 등 여인네들의 장신구들이 보인다.

자현 : 동생 장가 갈 때 색시한테 끼워줘야 한다고 온 몸이 다 타도록 끝까지 손에 쥐고...

시커멓게 타버린 장신구들 사이에서 금빛을 다 잃지 않은 반지를 보는 장하.

굳은 눈으로 반지를 집어 들고, 어정쩡 유골항아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는다.

해철은 누이의 죽음을 유난히 침착하게 억누르며 삼키고 있는 장하가 의아하다.
독립군들 말이 없고, 뱀처럼 줄지어진 월강추격대 대병력을 내려다보는 해철의 눈.
그들 너머 후안산 마을에 불꽃이 터지는 광경.

25. 후안산 마을 / 밤

해철의 눈을 마주보듯, 군마위에 탄 채 산을 올려다보는 지로.

(일본어)

지로 : 삼부 능선에 숨어 있다고?

쿠사나기 : 몇 마리 더 포이면 잡을까하여 꼬리를 붙여 왔습니다.

지로 : 굴을 파고 숨었나?

쿠사나기 : 아닙니다. 곧 이동할 듯 보입니다.

가소롭다는 듯, 씨익 웃는 지로.

“남양수비대입니다!” 사토의 외침에 지로, 쿠사나기, 고개를 돌려 보면,
저만치 남양수비대 20여명과 아라요시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

지로 : (눈을 가늘게 뜨며) 제국군이나? 거기같은데...

피로에 지쳐 다가오던 아라요시. 발을 헛디더 넘어져 엎어지고 만다.

지로 : 반갑다고 절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숨) 아라요시, 너는 일개 잔병들에게 패배한 것도 모자라
도망까지 쳤다. 명예롭지 못한 처사였어.

아라요시 : (심히 쪽팔려) 남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도리가 없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놈들의 전법은 상당히
훈련된 것들...

지로 : (말을 끊고) 전장에 나가보았나? 전장 경험도 없으면서 상대 전력을 판단해? 그런 주제에 추격대
대장을 자청했다지?

쿠사나기를 힐끗 노려보는 아라요시.

지로 : 군부의 명령대로 내일 소탕 작전에 섞여 움직여라. (군마를 돌리며) 고작 총 든 촌민들한테 쫓쫓쫓...

이때, 시끌벅적 소란이 일고, 일본군들이 생포한 마을 민 다섯을 지로 앞으로 끌어 옮긴다.

이 광경을 나무위에 숨어 은밀하게 지켜보는 해철의 부하 길산.

나무에서 뛰어내려 조금 더 다가가다 나뭇잎으로 숨겨 놓은 낫익은 등짐들을 발견한다.

불잡힌 마을 민들을 의아한 듯 주시하는 길산.

사토가 독립군 포로를 마을 민 앞에 마주 세우고, 말에서 내린 지로가 군도를 빼든다.

지로 : 전부 두건을 씌워라.

독립군 포로와 마을 민 다섯의 머리에 두건이 씌워진다.

지로 : 너희들이 독립군들을 먹여주고 채워준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독립군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하는 놈은 살아남을 것이다. 자, 손가락으로 가리켜라. 놈들이 숨어 있는 곳이 어느 쪽이냐?
(독립군 포로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너도 마찬가지로. 가리켜라!

스멀스멀 웃는 일본군들의 시선이 독립군 포로와 마을 민 다섯에게 집중되고,
두려움에 떨던 마을 민들, 하나 둘 씩 손을 들어 산자락을 가리키는데,
유일하게 해철과 독립군 일행이 있는 능선을 가리키는 독립군 포로의 손.
화면이 독립군 포로의 손끝이 가리킨 능선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면,

26. 후안산 방어고지 / 밤

화면가득, 날카로운 돌 끝에다가 포박을 비비는 손. 특하고 끊긴다.
그 모습을 은밀히 지켜보며 칼을 꺼내드는 개똥이. 유키오의 등 뒤로 은밀히 다가서는데,
막사 뒤편으로 뛰어 간 유키오가 누군가 찾듯 좌우를 기웃거리다가 멈칫. 저만치 춘희의 뒷모습...
가만 보면 칼을 거꾸로 들고 서 있다. 칼끝이 복부를 눌러 피가 저미고,
달려들어 춘희를 쓰러트리고 칼을 잡아채는 유키오.
잠시 여울진 시선이 오가고...

개똥 : (달려들며 발길질) 잇 새끼!

나가떨어지는 유키오, 칼날을 움켜 쥔 손에서 피가 흐르고,
개똥이가 유키오를 발로 밟으려는데,

장하 : (OFF) 밥 먹자.

돌아보면, 막 올라온 해철, 장하, 병구 등 독립군들이 서 있다.

CUT TO

식사중인 독립군. 말하는 이 없이 조용하다.
죽 두 그릇을 든 개똥이, 춘희를 먼저 구한 유키오가 띠꺼운 듯 노려보다 죽 한 그릇을 던진다.
툭 밀어서 엎어버리는 유키오.
그릇 엎어지는 소리 요란하고, 모든 이의 시선이 주목.
개똥이의 분노. 유키오에게 사정없이 주먹을 날린다.
맞다 못해 약이 오른 유키오도 되받아치며 바닥을 뒹군다.
독립군들은 말리지 않고 둘의 싸움을 잠자코 지켜본다.
싸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둘 다 힘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개똥이가 유키오의 머리채를 잡고 한쪽 방향을 가리킨다.
유키오 눈에, 저만치 죽을 끓이며 울고 있는 춘희가 보인다.

개똥 : ...다 처먹어!

개똥이, 쏟은 죽에 유키오 얼굴을 뭉갠다.
그때, 권총을 쥐고 다가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아까부터 유골봇짐을 안고 있는 장하를 저린 눈으로 쳐다보던 해철이다.
한손으로 개똥이를 떼어내고, 유키오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다.

전경) 탕- 후드득 밤새가 해를 치고,

27. 월강추격대 진영 / 밤

날아든 쿠사나기의 총알이 마을 민 남자의 머리에 박힌다.
방금 총에 맞은 남자가 앞으로 쓰러지고,
나머지 마을 민들도, 탕 - 탕 - 탕- 총을 맞고 쓰러진다.
아낙 한 명 남았다. 두건이 벗겨지고,

(일본어)

지로 : 중국인이라고?

쿠사나기 : 예 마을 무당입니다.

지로 : 제국의 흥운을 점 쳐봐라.

통역을 들은 무당, 잠시 고개를 들어 지로를 보다가 고개를 좌우로 젖는다.

무당 : (중국어) 신도 버린 나라의 운명을... 내 어찌 보오.

지로 : 뭐라고 한 거냐?

차마 전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는 통역병. 얼른 쿠사나기가 통역병에게 눈치를 준다.

통역 : ...능멸하였습니다.

지로 : (말에서 내려 무당의 얼굴을 훑는) 흑세무민이라... 나라가 기울면 허영이 판을 치지. 장담하는데
너는 칼 맞아 죽을 팔자다.

무당 : (중국어)(바짝 들이민 지로 얼굴에 대고) ...너도 칼에 지겠구나.

순간, 어느새 뽑은 칼로 무당의 목을 치는 지로.

광기 서린 지로의 칼날이 목이 떨어지기도 전에 무당을 발기발기 썰어내며 화면을 가르고,

28. 후안산 방어고지 / 밤

병구, 아가리, 재수, 자현 등, 바짝 얼어붙은 독립군 얼굴들.

화면 서서히 빠지면, 장하가 해철의 권총 진 손목을 붙잡고 있다.

해철 : 농으라우! 이 쪽바리 아 새끼래 눈앞에서 알짹거리지 못하게 치워 버리갔어!

장하 : 잊었어? 이 늙은 추격대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포로야! 작전 다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해철 : 이 손 놓지 못하갓썬?

장하의 손을 쳐내며 유키오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해철.
해철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리며 유키오를 막아서는 장하.
해철의 터진 입에서 피가 흐르고, 보다 못한 병구와 부하들이 달라붙어 해철과 장하를 떼어낸다.
분이 안 풀려 돌아서는 해철. 대원들을 뿌리치는 장하.
해철의 손에서 권총을 뺏는 병구, 총알이 없는 빈총이다.

병구 : 성님, 총알도 없는 빈총으로...?

대답 없이,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장하를 힐끔거리는 해철.

병구 : (뭔가 알아채고) 거 이제 보니 공공이 알아낼려구 죽탱이 내 줬구만...하긴...지금 저 쪽바리 아새끼 썩
제끼고 싶은 건, 성님보다 장하 저 노마겠지...근데 뭘 공공이가 들어앉았길래 저래 꿈쩍을 안 할까?...

구석, 쓸쓸히 놓인 유골뭉치.
따닥따닥 타는 모닥불, 숨소리조차 사치스러운 독립군들.
묵묵히 주저앉아 소총에 탄을 채우는 장하를 유심히 지켜보는 해철.

CUT TO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오줌을 누려고 바지를 내리는 병구.
이때, 해철의 부하 길산이 등짐을 잔뜩 메고 나타난다.

병구 : (의아스런) 짐 가져갈 놈들은 안 나타나고...뭐야? 그 짐 보따리들은 또 어서 났어?

길산 : 후안산 마을 숲에서 발견했어. 월강 추격대 놈들이 마을 사람 다섯을 쫓았는데, 그중에 이 짐들을 지고
온 배달꾼들이 있었던 것 같애. 배 채우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놈들한테 잡혔겠지.

등짐들을 단단히 지키고 앉아 있는 촌민3의 등짐을 풀어내는 길산.
촌민3의 등짐을 쏟아내자 체코제 소총이 와르르 쏟아진다. 촌민3,4 놀라 눈이 휘둥그레,
진성과 독립군들 모여들고, 막 지고 온 등짐 속 소총과 비교해보는 길산.

길산 : 같은 총이야. 농민으로 위장한 배달꾼들이 확실 해!

진성 : 이것이야 다 ...?

병구 : 장군님 명령 받고 철수하던 체코군하고 밀거래 한 총이요..한 명이 다섯 정씩 나눠서 쉰 명이 각자
홀어져서 봉오동으로 출발했는데...우리는 여기서 건네고, 독립자금을 받아 상해로 가기로 했고...

재수 : 일본군덜 길목마다 매복해서 배달꾼덜 사냥한다 카던디..상촌에 도착한 배달꾼이 있긴 이시카마심?

총이 없으면 싸우지도 못할 건디...

아가리: 산 넘으니 산이금 기래, 그나저나 이거 받아 갈 아 새끼들은 왜 안 나타나는 기야?

재수 : 상촌도 추격대 온다고 다덜 바짝 일영으네 튀어분거 아닌가 마썸?

해철 : 닥치구들 기다려 봐. 날 새기 전에 받으러 오갓지...

CUT TO

아무도 말하는 이 없는 고지 전경. 밤하늘 위로 별뿔뿔 하나 또르르 미끄러진다.
자현의 무릎을 베고 누운 춘희, 한기에 몸을 뒸다.

웃옷을 벗어 춘희를 덮어주는 해철.

해철 : (자현 옆에 앉아)...상촌 드간다구 들었는데...독립군에 합세하려고 맘이 든...사연이라두?...

자현 : 함께 싸우려구요. 꼭 찾을 사람도 있구...

해철 : ..뉘길?

자현 : 아라요시 시게루..라고...이쪽 남양으로 배치 됐다고 들었어요...

해철 : 아라요시?

자현 : 작년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을 셀 수 없이 죽인 놈이에요...쇠뿔뿔이, 쇠갈고리로 때려죽이고 찢어 죽이고.. 도망가는 여자들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음경을 지지고 산채로 태워죽이고..남편이 죽은 걸 보고 통곡하는 여자를 애 앞에서 겁탈하고 애랑 같이 총검으로 찢어 죽이고...(더 말을 잊지 못 하다가) 제가 거기 있었어요..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놈..절대로 살려두면 안 돼요.

해철 :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

다시 대화가 끊기고 찾아든 고요. 기다림과 배고픔의 시간들이 흐르고.

아가리가 보물처럼 숨겨뒀던(삼둔자 방어고지에서 훔친) 감자를 몰래 꺼내 입에 넣다가 썰렁함에 둘러본다.

주변 독립군들 모두가 침 넘어가는 눈으로 감자를 쳐다보고 있다.

입맛을 다시며 감자를 쪼개 옆의 독립군에게 건네면, 받은 독립군은 또 그걸 반으로 쪼개 옆으로 건네고, 앞으로 건네고, 뒤로 건네고, 결국 눈곱만큼으로 쪼개진다.

아가리: (혀로 맛보며) 갱게 먹어본게 얼마마인지....싸루루 녹는게.. 혀바닥으같이 넘어감메 어우 맛있어라.

독립2 : 갱게? 그쪽 고향이 어드렌데 감재를 갱게라고 한 대요?

독립1 : 내래 함경돈데 이바구 들어보이 고향이 강원도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갱게를 감재라고 함등?

독립3 : 갱게? 감재? 킁킁...마 우리 경상도에서는 궁감자라 카는데 궁감자라는 말이 제일로 개안타카이!

촌스럽꾸루 갱게가 뭐꼬!

재수 : (가만히 듣고 있다) 아이네 무시거막 고락고락 햄시니? 무시거어뎡 갱게? 궁감자? 어이구, 궁상맞은

소리헌다. 야 쿿구망이 두 개난 숨을 쉬주 숨이 들도나도 아니염져. 너네 지실이렌 들어왔나? 땅 지자에

열매 실자 행으네 지실. 땅에서 나는 열매. 이 서른아기덜야. 보라게! 잘도 아팜꼬 제라지지 아느냐?

아멩고라도 제주돏말이 젤로 곱들락 허메.

독립들:???

재수 : 아이네 보라. 막 귀눈이 확확해부럼구나? 나 무시거엔 고람신지 몰랑구나게?

재수의 제주도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이 아무도 없고 눈만 멀뚱멀뚱...

해철 : 전국 팔도 모여서 갱게 하나 갓구 놀구들 있굼기래...야, 개똥이? (장하를 힐끔 보며)

봉오동 상촌에 니가 마지막으로 본 독립군들 수가 어림잡아 얼마나 되갓던?

개똥 : ...백 명 정도요...

병구 : (충격에 머영) ...이백은 족히 넘을 거라 들었는데...

개똥 : 그제 때번 들쭉날쭉이라...정확한 수는 몰라요.

병구 :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암마... 니들 군인이야. 쪽수도 몰라?

해철 : (바위에 걸터앉으며) ...고조 우린.. 쪽바리들 쪽수는 대충 잘 알디. 놈들 쇠붙이두 어떤 걸 들구 다니는지두 잘 알구. 근데 전국에 독립군들 쪽수는 알 길이 없어. 웬 줄 아네?

독립군들 도리도리.

해철 :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 독립군이 될 수 있따아~ 이 말이야.

다들 실실거리며 웃자, 해철 능청스럽게,

해철 : 아, 와 웃네? 틀린 말 같니? 나두 함경에서 염소 키우고 살다가 전국 팔도를 떠돌았지만, 별거 없었어.
요기 진짜 군인이 한 마리라도 있니?.. 재수 저 아새끼래 부산에 갔을 때 쑥대밭이 된 마을 우물 안에
사흘 넘게 숨어서 굶어 죽을 뻔 한 걸 살려 온 아새끼고, 남사당패에서 광대 짓 하던 길산이 저 아새끼
경성에 갔을 때, 맨주먹으로 일본놈 대여섯 쓰러트리고 총 맞아 죽을 뻔 한 걸 구해 온 아새끼고, 병구
저 놈은 아가리하고 자, 자들이랑 우리 털러 왔다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받쳐 준 고마운 놈이지
군인은 아니야. (장하의 부하들을 가리키며) 느는? 느 군인이야? 느는?

다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저어 보인다. #7의 촌민3,4 격하게 고개를 젓는다.

해철 : 보라우. 집단이 우릴 만든 게 아니야..나라 뺏긴 설움이 우릴 복받치게 만들고 잡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디,

고지 바깥. 누군가의 시점.

월강추격대 정찰조 5명, 하필 해철의 시선이 이쪽을 향하자 움찔 얼어붙는다.

조장이 제스처를 취하자 정찰조 하나가 재빨리 뒤로 빠지며 언덕을 내려간다.

해철 : 아무튼 장군께서 뭐 수가 있지 안잖어. 봉오동 지리상... 한 백 명 가지고두 해볼만하디. 글티?

장하 : (OFF) 거 드럽게 말 많네.

모두 장하를 보는데,

장하 : 빨리 돈이나 챙겨 내려가. 왜 뺨대고 있어.

해철 : (장하 보며) 씨끼가... 내래 오늘은... 진짜 독립군이다.

장하 :

해철 : (벌떡 일어서며) 웬 줄 아니? 내래 부끄럽고 싶지 않으니까...

해철과 눈이 마주치는 장하, 애써 시선을 피한다.

해철 옆에 비짝 붙는 병구, 한쪽으로 잡아끌며,

병구 : 성님, 고것이 뭐 소리래. 추격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친 마당에 무덤 파고 눕겠다고?

해철 : 아새끼래 니는 또 뭐이 불만이니?

병구 : 북만주에서 여기까지 쟤가빠지게 저것들 굶어지고 와 봐야 반기는 새끼 덜 하나 없잖어! 도적도 옛적
에나 도적이지 성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된 도적질 한 번 한 적 있어? 성님은 까맣게 잊었나본데, 나
마적이었어.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벌써 몇 년째 팔자에도 없던 독립군이 왜가지고 쫓쫓 굶어가며...

해철 : 니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병구 : (말문이 텅, 부하들 눈치 보며) 암튼, 성님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저 무기들하고 독립자
금 챙겨서 내려갑시다.. 총 있겠다, 돈 있겠다, 어디 가서 못 살것씨? 그 동안 독립을 위해서 이바지
했으니까 보상금이다 생각하고 각자 나눠 갖구 뜨자구, 웬? 성님!

해철 : 총알하고 돈은 다 써서 없어질 거구, 그 답에 어디로 갈래? 니 밭고 살 땅 있네?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겨울은 어찌 날래? 죽어 누울 땅은 있네?...아 새끼래 우린 그 땅을 찾아야 끝이야.

병구 : 땅 없음 어때, 총이 있는데...총 갖구 돈 뺏구, 응? 뺏은 돈으로 총 또 사구, 응? 그 총으로 돈 더 많이 뺏구...응? 더 많이 뺏은 돈으로 총 더 많이 사구...(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 완전 나쁜 새끼네. 기냥 쪽바리들 새끼들이야...성님, 이 새끼덜 당장 때려잡으려 갑시다, 응? 가자구!

이때, 해철을 향해 날아오는 꾸러미, 병구가 손을 뻗어 탁 받는다.
꾸러미를 집어던지고 무심히 돌아서는 장하, 풀어보면 약꾸러미다.

병구 : ...병 주고 약주고...지랄도 풍년이다 진짜...일루 와!

괜찮다고 돌아서려는 해철의 찢어진 입술에 억지로 약을 발라주는 병구. 티격태격...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이른 여명을 보는 유키오 옆으로 죽 그릇이 들어온다. 춘희다.

춘희 : 살아서...니들이 어찌 젖값을 치르는지...꼭 살아서 지켜봐. 그리고...

화면가득, 장하가 유골항아리를 낚은 보자기로 정성껏 싸맨다.
춘희, 여명에 눈물을 씻고, 해철이 장하와 춘희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춘희 : ...돌아가서...한 사람이라도 니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니가 본 걸 꼭 그대로 말해줘.

29. 몽타주 / 낮

음악과 함께,

자막 『6월 7일 오전 6시』

독립군 완전무장태세. 구식이지만 나름의 숙련된.
앓된 얼굴들의 능숙함이 화면에 이질적 충격을 준다.
등짐으로 위장한 총들을 상촌까지 옮기기 위해 다시 단단히 짊어진 해철의 부하들.
자현도 병구가 말리는 걸 뿌리치고 등짐을 짊어지고,
마지막 컷은 유키오의 시선으로 마무리.
이윽고, 봉오동 지도가 짙 펼쳐지고,

장하 : 고려령에서 살짝 터치.. 그리고 여기 협곡에서 터치. 이쯤 오면 새끼들 후끈 달아오를 거야.
해철 : 걱정인건 최종목적지, 여기. (*봉오동 상촌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막다른 곳이야. 추격대새끼들을 포위하긴 안성맞춤이지만...만에 하나 장군님이 지원해주지 못하면...우리 무덤이 될거다..
장하 : 겁나면 지금 빠져!
해철 : (표정 바꾸며 능청스레) 아니, 아니...이게 장군님이 일러둔 병법이라 이거지? 으...야해... 좋아..

세찬 바람에 해철, 장하, 독립군들의 머릿결이 흩날린다.

해철 : (유골봇짐을 보며) 좋은 바람 부는데 여기서 뿌려주고 가자.

장하 : 고향땅으로 보내 줘야지...

자현 옆에 선 춘희에게 유골봇짐을 건네는 장하

장하 : 장군님 만나면 전해드려. (찾듯) 개똥이!

개똥 : (OFF) 엠피!

덕지덕지 완전 무장한 채 고무되어 눈을 빛내는 개똥이.

장하 : 춘희하고 (유키오를 가리키며) 저 놈을 상촌으로 데려 가!

개똥 : 나두 독립군이요. 함께 싸울래요.

장하 : 막중한 임무야. 전위대를 만날지 모르니까 절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능선 지름길로만 가고!

(자현에게) 그럼, 부탁드립니다.

자현 : (끄덕이고) ...

30. 월강 군막 / 낮

쿠사나기 곁으로 정찰대원이 빠르게 다가선다. #28의 정찰조1.

쿠사나기가 황급히 지로의 군막으로 향하고,

일본도를 손질 중인 지로. 군막이 곁히며 칼날에 햇빛이 번들거린다.

(일본어)

쿠사나기 : 놈들의 머릿수가 늘었습니다. 사십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독립자금 전달 책 이진성도 함께 있습니다.

지로 : 어린 포로는?

쿠사나기 : 무사하답니다.

지로 : 대동아 정복에 앞장 설 제국의 아이다... 반드시 구해서 내 앞으로 데려 와.

그때, 지로의 칼날이 또 한 번 번들거리고 군막 안으로 들어서는 아라요시.

CUT TO

어이가 없는지 군막이 떠나가라 웃는 지로.

쿠사나기와 아라요시 으르렁대며 노려보고,

(일본어)

쿠사나기 : ...늑대무리를 개가 끈다고?

지로 : (뚝 웃음을 멎고 쿠사나기를 무섭게 본다)

쿠사나기 : 죄송합니다, 저희가 늑대라는 뜻이 아니라...

아라요시 : (그 사이로 끼어들며) 목을 절겠습니다.

지로 : 이미 달아날 목일 텐데?

아라요시 : (무릎을 꿇는) 놈들을 알고 있으니 절대 실수 하지 않을 겁니다.

지로 : (피식) 어느 손으로 총을 쏘나?

아라요시 : 오른손...?

지로의 칼이 순식간에 아라요시의 왼손검지손가락을 잘라내고, 터지는 비명을 삼키며 왼손을 움켜잡는 아라요시

지로 : 피가 마르기 전에 잡아 와라. 그럼 다시 붙여 주지. 가라!

31. 산길 - 호송 / 낮

딱- 돌멩이를 걷어차는 개똥이, 불만 가득한 표정.

낭떠러지를 지나던 춘희가 발을 헛디더 삐끗하자, 유키오가 포박된 두 손으로 잡아준다.

주위를 경계하며 뒤따르던 자현이 슬쩍 쳐다보고 개똥이도 돌아본다.

어색해지기도 전에 춘희는 거리를 두며 앞선다.

포박된 손이 불편한 유키오 자꾸만 뒤쳐진다.

개똥 : (열이 올라) 쪽바리!

개똥이 단검을 찌к 빼들고 종종 다가선다.

유키오 앞에 딱 멈춰서더니 두 눈을 마주보고 선다.

픽- 소리에 화면 아래로 눈을 내리는 유키오. 포박된 줄을 끊었다.

개똥 : 뭘 쳐다 봐, 전진! 전진!

어느덧 계곡의 물가에 도착한 그들. 계곡 아래로 폭포수가 떨어진다.

자현, 주위를 경계하고, 개똥이 수통에 물을 담아 춘희에게 건넨다.

한 모금 마시고 짧게 숨을 내 뱉더니, 유키오에게 수통을 내미는 춘희.

개똥 : (괜히 버럭) 반어!...줄 때 언능 쳐 마시라고!

유키오 : (물을 마시고 개똥이에게 수통을 건네면) ...

개똥 : (받아 벌컥 벌컥 마시며 더듬더듬 일본어) 이름 뭐야?

유키오 : (일본어) 뭐?

개똥 : (버럭) 이름 뭐냐고 쪽바리새끼!

유키오 : (일본어) 유키오.

개똥 : (끄덕끄덕) 음 유키오...

유키오 : 개.. 똥...

개똥 : 뭐?!

홍당무가 된 개똥.

유키오 : (일본어) 이름의 뜻이 뭔가?

개똥 : 느 이 새끼... 알면서 묻는 거지!

유키오 : (도리도리) ... 소똥 똥말똥 안다.

개똥은 웃어버린다. 자현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지만, 아이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조금 풀어진다.
춘희가 먼저 출발하고, 앞서 가는 춘희를 턱 끝으로 가리키는 유키오.

개똥 : ...춘 희.

유키오 : ...춘 희 (일본어) 봄이 온다...라는 뜻인가?...

색채 만발한 꽃길로 접어드는 춘희의 뒷모습.

유키오 : (일본어)(OFF) ...좋은 이름이다.. (조선어로 떠들떠들) 봄이 온..다...

순간, 너른 길목에 들어서던 춘희가 멈칫 경직된다.
바짝 총구를 겨누고 서 있는 월강추격대. #28의 정찰조2,3,4다

정찰조장 : (검지를 입에 대며) 쉬...

개똥이 숲을 나오는데,

춘희 : 도망쳐!

탕 -

순간, 유키오가 개똥이를 잡고 구르고 탄환은 나무에 박힌다.
자현의 앞에도 어느새 정찰조5가 총을 겨누고 서 있다.
씨익, 웃는 정찰조5. 총구를 돌려 개똥이를 쏘려는 순간, 자현이 달려들어 폭포 아래로 밀어붙인다.
자현과 정찰조5가 뒤엉킨 채 폭포수 밑으로 떨어지고, 풍덩!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자현을 떼어 내리는 정찰조5와 더욱 더 필사적으로 끌어안는 자현.
소총들이 가득 든 등짐의 무게 때문에 빠르게 가라앉는 자현과 정찰조5.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고 입을 뻐끔 거리다 숨이 끊어지는 정찰조5.
풀어진 등짐 사이로 빠져나온 소총들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남은 숨을 필사적으로 참아가며 물속에 가라앉은 소총들을 어깨에 둘러메는 자현.
마지막 소총까지 어깨에 둘러메고 물 밖으로 차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죽음직전까지 차오른 숨과 어깨에 멘 소총의 무게 때문에 자꾸만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현.
그때 폭포 위쪽에서 탕! 탕! 또 다시 총소리.
폭포 위 우거진 숲. 바짝 엮드린 채 허둥지둥 총을 쏘는 개똥.
그런 개똥의 총을 덮으며 고개를 가로젓는 유키오. 개똥의 단검을 빼 집더니 자신의 손바닥을 벤다.
개똥이 숨어 있는 수풀로 총구를 세워 다가서는 정찰조4.

유키오 : (일본어) 제국 만세!...

스윽, 정찰조4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유키오.
막 혈투를 끝낸 듯 피 묻은 제복차림. 단검을 툭 떨군다.

정찰조4 : (일본어) 해치웠나?

유키오 : (일본어) (끄덕, 잡혀 있는 춘희를 보며) ...그 아이는 근방 촌민이니 돌려보내도 됩니다.
정찰조장 : (일본어) ...네 소관도 아니다. 연행하라.

정찰조장이 춘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끈다.
개똥이가 엉겁결에 수풀에서 벌떡 일어나며 발각된다.
개똥이를 향하는 정찰조4의 총구. 얼른 유키오가 막아선다.
순간, 정찰조4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지는 유키오.
달아나는 개똥이 뒤로 무지막지한 충격.

32. 숲 길 언덕 - 독립군 / 낮

싸아아 해철과 독립군들이 일렬로 주르르 서서 오줌을 갈기는 중이다.

해철 : 느는 해방이 되든 뭐 할 거니?
병구 : 해방? 황새 가랑이 찢어지는 걸 기다리지...
해철 : 하긴, 점점 해방이란 말이 생소하구나야... 내래두 그 생각은 못해봤는데. 난 거조 따뜻한 남쪽 댐
 끝으루 가서...
병구 : 고향이 지척인데, 고향은 안 가구?
해철 : 가서 뭐하니! 거긴 이제 정들 데 없어야...(지도를 살피는 장하를 보며) 장하 느는 뭐 할 거니?
 까짓거 느두 나랑 고기나 잡구, 간나들이나 췌러 다니자우.
병구 : 보면 몰라. 재는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천성이 딱 군인이야. 각 봐, 각. 평소에도 각도가...

그때, 장하를 향해 달려오는 개똥이. 흠뻑 젖은 얼굴, 울먹울먹.

CUT TO
등을 돌리는 장하.

개똥 : 어쨌 그래요!!!
장하 :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개똥 : ...씨 나 혼자 갔다오지 뭐. (총과 총탄을 챙긴다.)

짹- 날아드는 손바닥.

장하 : 까딱하면 작전이고 뭐고 다 죽어!

장하를 원망스레 보는 개똥.

개똥 : 우리 엄니 아버지... 내 눈 앞에서 목이 떨어졌시다. 내 그때 낫자루 들 힘만 있었어도...(울컥)
장하 :
개똥 : 대장 누야도... 죽어서까지 먼 길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잊었어요?

그때, 대원의 음성.

포수1 : (OFF) 추격됩니다!

모두 그쪽을 바라보고, 망원경을 꺼내드는 장하. 아래를 내려다보면,

33. 언덕 아래 벌판 / 낮

아라요시의 망원경 시점 - 멀리 산등성이에 해철과 독립군 30여명의 모습.

장하가 망원경으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망원경을 떼는 아라요시. 주위로 100여명의 추격대. 득의양양.

봉대를 감은 왼손을 내려다보는 아라요시. 고통스럽다가, 실실 웃다가,

아라요시 : (일본어) 밥은 왼 손으로 먹는데..쩍...가만 놔두나 봐라...

34. 숲 길 언덕 - 독립군 / 낮

장하 : (망원경을 떼며) 어젯밤 병력 삼분의 일밖에 안 돼. 한꺼번에 유인하지 않음 의미가 없어. 반드시 본대가 붙어야 돼.

“어 저 새끼! 저거” 해철이 밑을 내려다보면 개똥이 무장한 채, 숲 아래로 달려가고 있다.

해철 : (개똥을 보며 번뜩) 본대를 붙일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장하가 해철을 본다.

해철 : 작전, 약간만 수정하자우.

35. 숲 - 길 언덕 - 아라요시 / 낮

총구를 세워 전진하는 100여명의 추격대. 아라요시 자신만만. 갑자기 앞에서,

병사 : (일본어)(OFF) 독립군들이 사라졌습니다!

독립군들이 오줌을 누던 자리. 독립군들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병사들 : (일본어)(OFF) 아아 지린내가 왜 이리 나지?

36. 조금 위쪽 숲 - 장하 / 낮

추격대와 좀 떨어진 숲의 굴곡 언덕, 맨 앞에 우뚝 선 장하가 월강추격대를 내려다본다.

포수1 : (함께 보며) 해철이 성님 말대로 성공할까요?

장하가 휘익- 낮게 휘파람을 불자 말 두 필(방어고지의)이 장하 곁으로 다가선다.
말목을 쓰다듬으며 진성에게,

장하 : 아재,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진성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37. 숲 - 아라요시 / 낮

멀찌감치 이쪽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장하를 발견하는 아라요시.

아라요시 : (일본어) ... 게릴라 전술을 쓰시겠다??

신속하게 횡렬로 늘어서는 추격대 병력들.

아라요시 : (일본어) 바야흐로 토끼사냥이다! 포위를 좁히며 압박한다! 전진!!!

38. 숲 - 장하 / 낮

어금니를 꼭 악무는 장하.

장하 : 니들 나와바리라는 말 좋아하지? 여긴 내 나와바리야.

장하와 독립군들 달리기 시작하고,

39. 월강 군막 / 낮

벗은 제복 옷을 단정히 접어놓고, 밖이 안보이게 군막 커튼을 닫는 손.
유골봇짐을 안고 뒷걸음질 치는 춘희.

정찰조장 : (일본어)(OFF) 가고 싶으면 가. 강요는 안 해.

언행불일치. 혁대를 풀며...

정찰조장 : (일본어) 전쟁영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살짝 도취) ...사랑이지...

맨 몸에 속옷과 칼만 남는다. “사랑 좀 나눠 주련?”

40. 지로의 군막 / 낮

칼을 허리에 두르며 하나 둘 군장을 차는 지로.
그러면서 힐끔 힐끔 어딘가를 본다. 화면 팬 하면,
막사 중앙, 꿇어앉은 유키오와 그 옆에 정찰조 셋이 서 있다.

(일본어)

지로 : 동경 제일고등학교(だいいちこうとうがっこう 다이이치코토각코)에 다녔다구? 다이이치코토각코라면
제국의 인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최고의 명문 학판데, 한창 공부할 시기에 군에 자원까지 하고..
부친을 따라서 빨리 좋은 군인이 되고 싶었나?

유키오 : 제국의 총과 칼이 어떻게 쓰이는지...보고 싶었습니다.

지로 : 역시 대동아 정복에 앞장선 부친을 닮아서 기특하구나...그래...보니 어땠던?

INS) 삼둔자. 충격과 절망이 혼재된 유키오의 얼굴. 그 앞에 동생을 안고 오열하는 춘희의 모습에서,

유키오 : (어금니를 꼭) ...부끄러웠습니다.

군도를 빼어드는 지로. 잠시 칼을 찬미하듯 보다가 서슬거리는 칼끝을 직선으로 내지른다.

지로 : 미개한 조선 민들을 다스리는데...

INS) 서슬거리는 칼끝. 위 디졸브.

칼끝이 춘희의 살갓을 스르르 훑는다. 정찰조장, 나 홀로 무아지경.

지로 : 제국의 사무라이 혼만큼 적절한 것도 없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 가겠다 그러니...

유키오 : 그들이 미개한 민족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로 : (약간 당황)

41. 숲 / 낮

산을 헤매는 아라요시 추격대. 두리번두리번 흠뻑 젖은 얼굴들.
어느새 좀 더 높은 지대에서 추격대를 바라보는 장하와 독립군들.

유키오 : (일본어)(OFF) 제가 책으로 조선을 공부할 때나 아버지로부터 조선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장하가 방아쇠를 당기자 동시에 독립군 포수들의 사격도 가해진다.
추격대 네 다섯이 쓰러지고, 화들짝 충격 위치를 가늠하는 아라요시.
담담한 표정의 장하와 독립군. 총은 도구일 뿐, 나름의 고결한 맛이 있다.

유키오 : (일본어)(OFF) 그것은.....강한 ...열등감이었습니다.

42. 지로의 군막 / 낮

탁 - 말을 자르듯, 칼을 칼집에 소리 내어 넣는 지로.
애써 참는 지로의 얼굴거죽이 파르르 떨린다.

지로 : (일본어) ...너는 순진함이 지나쳤다.

특- 와키자시(할복용 군도)가 유키오 앞에 던져진다.
집어 드는 유키오. 망설임이 없다.
할복자세를 취하는 유키오.
꿀럭, 배에서 피가 스며 나온다.
그때 찌이익- 소리. 모두 소리가 난 쪽을 보고,
막사 한 쪽, 한 뼘 찢어진 틈으로 무언가 쏙 들어와 바닥으로 데구루루.

병사들 : (일본어) 수 수류탄?! 피하십쇼!

재빨리 지로를 호위하며 나가는 병사들.
끌려 나가다시피 하는 지로와 눈을 마주하는 유키오. SLOW.
지로가 밖으로 사라지자, 뭉어진 눈으로 바닥의 수류탄을 본다. SLOW.
데구르르~ 무릎 앞에서 멈추는 수류탄. 익숙한 글귀...く라마스(쿠라마스)

유키오 :

곧이어 연발 총성, 막사 밖 푹푹푹 쓰러지는 소리.

43. 동 / 밖 / 낮

독립군들이 터트린 연막으로 온통 뿌연 주위.
연속적으로 날아 온 탄에 몸을 피하던 지로의 어깨에 구멍이 뚫린다.
뿌연 연막 속에서 방금 쏜 총을 거두며 궁시령대는 해철.

해철 : 이거이 이거이 안 맞아!

연막이 잠시 걷히면서 자신을 쏜 해철을 발견하는 지로.
자기가 맞힌 줄도 모르고 궁시령대다가 지로와 눈이 마주치는 해철.
잠시 서로의 눈을 노려보다가, 사토와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연막 속으로 몸을 피하는 지로.

44. 월강 군막 / 낮

춘희의 옷을 벗기려던 정찰조장, “응?” 기척에 뒤를 보는 순간,
개똥이의 칼날이 섬뚱, 목을 향해 날아들고, 아슬아슬 피하는 정찰조장, 개똥이의 칼을 쳐내고 배를 찌르면,

살짝 베이며 경찰조장의 팔을 잡고 위태롭게 버티는 개똥.
춘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고,

45. 지로의 군막 / 낮

화면가득,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해철.
화면하강, 할복 중인 유키오의 칼날을 잡고 버티는 중이다.

해철 : 미친 아씨끼래...춘희가 한 말 잊었니? 살아 돌아가서...내가 본 걸 꼭 그대로 말해줘야디?!...

그때, 춘희의 비명을 듣고 눈을 치켜뜨는 유키오.
할복하려던 와키자시를 빼내 쥐고, 군막 밖으로 달려 나간다.
유키오를 따라 군막 밖으로 뛰어 나오는 해철, 온통 뿌연 연막으로 앞을 분간하기 힘든 상황.

46. 월강 군막 / 낮

쓰러진 개똥의 몸뚱어리를 미친 듯이 짓밟은 경찰조장.
달려드는 춘희를 뉘아채, 끌어안고 빠드렁니를 드러내며 씨익, 웃는다.
이때, 군막 안으로 뛰어 들어 온 유키오가 경찰조장의 등허리에 와키자시(할복용 칼)를 찔러 넣는다.
순식간에 칼을 맞는 경찰조장, 춘희를 팽개치고 유키오의 배를 찌른다.
‘악’ 쓰러지는 유키오, 경찰조장의 칼을 잡고 늘어진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유키오.
총을 꺼내 유키오의 머리를 겨누는 경찰조장, 탕~ 방아쇠를 당기는데,
퍽!~ 경찰조장의 머리가 날아간다.
보면, 경찰조장의 머리를 날린 총구를 내리며 거친 호흡을 내 뱉는 자현!
소총들을 어깨에 둘러메고 온통 젖은 몸으로 우뚝 서 있다.
자현의 호위를 받으며 춘희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유키오, 개똥이와 함께 비틀비틀 군막 밖으로 뛰어나간다.

47. 동 / 밖 / 낮

연막 속에서 하나 둘 다가오는(방향하는) 일본군들.
병구가 총격을 가하며 해철을 엄호하고, 앞을 분간하기 힘든 연막을 헤치며 춘희와 개똥이를 찾는 해철.
군막 하나를 열어 제치자 쇠말뚝에 개처럼 묶여 있는 독립군 포로가 보인다.

해철 : 우리 편? (옷을 건어 올려 고문 흔적을 확인하고) 맞굶 거래. 갑시다, 자유요.
독립군 포로 : (힘겨운 눈으로 항일대도를 살피더니) 흑시..황...
해철 : (의아한) ...해철이요...황해철...나를 아시오?
독립군 포로 : 대한북도독군부 신민단 소속 함철훈이요...장하한테...자랑 얘기 많이 들었소..칼 잘 쓰는 형이 있는데...그 글귀가 새겨진 항일대도를 쓴다고...
해철 :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 자세한 통성명은 나중에 하고....

서둘러 포박을 풀어주려는 해철. 그런데 독립군 포로가 해철의 손길을 거부한다.

독립군 포로 : 난 임무가 있소, 그대로 두고 가시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육신으로 오히려 해철을 밀어내는 독립군 포로.
의아한 해철, 문득 포박 풀던 손을 멈추고,

해철 : (이제 알겠다) 어쩐지 잘 알구 바짝 따라 붙는다 했더니만...시작부터 속임 작전이었구만 기래...

독립군 포로 :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어서 가시오.

해철 : 기키른 놈들을 상춘 골짜기까지 달고 가는 장하하고 한 짝패겠군 기래. 기 아 새끼는 추격대를 계속 자극하면서 상춘 골짜기로 유인하고, 그 쪽은 계속 장하 새끼래 도주로를 알려 주면서 추격대를 끌고 가고...

순간, 수발의 총성과 함께 군막에 구멍이 뚫리고,

독립군 포로 :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어서 가시오!

해철 : 그럼, 구할 길 만들어서 다시 오겠소. 조금만 참고 계시오.

계속해서 들려오는 연발의 총성, 빨리 나오라는 병구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고,
굳건히 버티는 독립군 포로를 포기하고 군막을 빠져나가는 해철.

48. 숲길 - 도주 / 낮

춘희의 손을 잡고 질주하는 유키오. 칼 맞은 배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바로 뒤에서 따라 붙는 자현, 일본군들을 향해 총을 쏜다.
일본군들의 대응사격에 위태롭게 총탄이 날아들고, 춘희, 유키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는데,
춘희와 개똥이를 발견한 해철과 병구, 부하들이 일본군들을 쓰러트리며 합류한다.
병구, 춘희의 손을 잡아끄는 유키오를 의아스럽게 쳐다보며 피식.

49. 월강 군막 / 낮

연막이 점차 걷히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지로가 사토의 부축을 뿌리치며 말을 부른다.
쿠사나기와 겐쇼가 달려오고, 지로가 벌건 눈으로 말에 올라탄다.

(일본어)

지로 : 수류탄이 터지지 않았다.

쿠사나기 : 예? 무슨...

지로 : 기만작전을 아는 놈들이다. 사토!

사토 : 하이!

지로 : 아라요시는 놈들의 적수가 못돼. 아라요시를 찾아!

헛 박차를 가하며 달려 나가는 지로.

50. 숲 - 추격 / 낮

숲을 달리는 지로와 기마대.
거세게 고삐를 당기는 지로. 저만치 달리는 독립군들이 들어온다.
해철의 신호에 병구가 자현과 개똥, 춘희와 함께 옆길로 갈라진다.
갈라지는 독립군을 보는 지로, 해철과 독립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기마대도 해철을 쫓아 방향을 튼다.

51. 숲 길 / 낮

해철이 달리며 뒤를 돌아본다.
군마 하나가 점점 가까워지고, 보면 지로다.

해철 : (거의 잡힐 즈음) 꺾으라우!

앞장 서 달리던 부하들이 숲으로 꺾으며 사라진다.
해철이 마지막으로 지로를 흘끗 보며 사라진다.
지로와 기마대가 쫓아서 들어간다.

52. 숲 - 계곡 / 낮

숲을 달리던 지로의 기마대. 무성한 수풀 앞에서 급히 말을 세운다.
계곡의 세찬 물소리가 사방을 메우고,
쿠사나기와 월강포수들이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지만 물소리만 쿵쿵- 기분 나쁜 고요가 엄습한다.

쿠사나기 : (일본어) ...아무래도 석연찮습니다. 먼저 제가 선방에서 놈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상처부터 살피시고 그 다음에 월강본대를 상촌에 투입하시지요.

분노대신, 총을 맞은 어깨로 집게손가락을 가져가더니,
곧 피범벅이 된 손으로 탄환을 빼내어 바닥에 버리는 지로. 신음조차 없다.

53. 숲 - 아라요시 / 낮

아라요시를 따르던 병사들. 모두 땀에 젖어 녹초가 된 모습.
잡힐 듯 눈앞에 보이던 장하와 소수 독립군들의 모습이 또 다시 사라진다.

조장 : (일본어) 아무래도 유인작전 같은데 분대를 나눠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아라요시 : (일본어)(절레절레) ...놈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때 뒤쪽 멀리서, 뿌우우우- 군의 나팔소리.

조장 : (일본어)(보더니) 회군나팔 신호입니다.

아라요시 : (일본어)(찌중) 뭐?

조장 : (일본어) 일단 돌아가시지요.

그때, 문득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

아라요시가 재빨리 말을 움직여 소리가 나는 곳을 본다.

아라요시의 망원경 시점. 해철과 독립군들이 갈대숲 언덕을 오르는 것이 보인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아라요시.

54. 갈대언덕 - 해철 / 낮

언덕을 오르는 해철과 길산, 재수, 아가리 등 부하들.

갈라졌던 병구와 자현, 개똥, 춘희, 유키오가 반대쪽에서 나타나 다시 합류한다.

그때, 핑 - 날아든 총알에 나무가 터진다. 획 뒤를 보는 해철.

아라요시의 육로 병들이 일렬로 총격을 퍼부으며 쫓는다.

해철 : 날래 서두르...

퍽! -

춘희가 메고 있던 유골보침이 총탄에 맞아 터진다.

깨진 조각조각. 곱고 하얀 가루가 바닥에 쏟아진다. SLOW.

해철의 얼굴에 그늘이 깔린다.

개똥 : 안 다쳤어? 응?

춘희, 허둥지둥 울먹이며 유골을 모아 담는다. 개똥이도 손을 뚝는다.

해철 : 내비 두고 날래 올라가라!

자현과 아가리, 재수, 길산이 대응 사격을 하고,

정신없이 유골을 모으는 춘희와 개똥. 착잡해지는 병구.

해철 : 병구, 시간 없어. 애덜 뎀꾸 날래 올라가라우!!!

어쩔 줄 몰라 울먹이는 개똥. 춘희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병구.

자현이 엄호 하며 병구를 따르고,

다가오는 적을 향해 돌아서는 해철. 칼을 뽑는다.

해철 : 중간나 씨끼들 - 모조리 찢어버리가씨 -

추격대가 다가오는 갈대수풀로 성큼성큼 내려서는 해철.

긴 수풀 속으로 빠르게 돌진.

침을 뱉어 문지른 손에 굳게 거머쥔 칼. 칼날에 닿는 풀포기들이 녹듯이 잘려나가고,
썰렁썰렁- 선두로 만나는 일본군을 조각낸다. 단말마로 칼끝에 부서져가고, 항일대도를 휘두르며 밀어붙이는 해철.
한바탕 쾌도난마.

재수, 아가리, 길산 등 해철의 부하들도 그 뒤를 따라 총과 칼을 휘두르며 일본군들을 상대한다.

55. 언덕 위 / 낮

병구와 자현, 개똥, 춘희, 유키오가 언덕에 올라서자, 불쑥 말 두 마리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멈춘다.

자현이 흠칫 경계하며 총을 겨누다가 이내 진정한다. 진성이 탄 말이다.

진성 : (개똥, 춘희에게) 얼른 타거라! 곧장 상촌으로 간다! (자현에게) 어서 타요!

자현 : 일본 놈들이 너무 많아요. 남아서 싸울게요.

개똥이 말에 오르고 춘희가 개똥의 뒤에 타는 걸 유키오가 돕는다.

병구 : (서둘러) 좀 돌더라도 전위대를 만날 수 있으니까 협곡은 피하세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반나절 안에 도착할겁니다!

진성과 개똥, 춘희가 탄 말이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잠시 돌아보는 춘희, 유키오와 눈이 마주치지만 이내 유키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병구 : (일본어) 어린 놈, 이제 넌 니 갈길 가라! 자유다. 집에 돌아가든 댄또나 싸가꼬 학교나 다니고 여긴 다시 오지 말구!

유키오를 두고 언덕 밑으로 뛰어가는 병구, 자현.

움켜쥔 배에서 손을 떼는 유키오, 흥건히 고인 피가 꿀럭 쏟아지며 발을 적시고, 한 걸음 걷다가 폭, 쓰러진다.

56. 갈대수풀 / 낮

바람처럼 나타났던 해철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여지없이 목이 떨어지는 일본군들.

일본군이 해철을 발견하고 총을 겨눌 때쯤이면 이미 해철의 항일대도가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일본군들 겁에 질려 우왕좌왕 흩어지는 중.

해철의 온 몸이 적들의 피로 얼룩덜룩.

한편 양쪽에서 해철의 위치를 가늠하며 조용히 다가서는 일본군1,2,3.

일본군1이 해철의 등을 노리는 순간, 날아든 총격에 펍 주저앉는다.

언덕 경사의 병구. 신속 장전. 두 번째 총격.

일본군2의 명치가 터진다.

남은 일본군3이 총구를 틀어 병구를 겨냥한다.

썰렁- 해철의 칼이 일본군3의 두 팔을 썰어낸다.

병구 : (밀을 가리키며 외친다) 성님!!!

전경) 경사 아래, 다수로 뭉친 일본군이 물밀듯 올라온다.

달리는 해철과 부하들 뒤로 총알이 난무하고, 병구, 자현이 합류.
무얼 찾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던 해철이 갑자기 뚝 멈춰 선다.
부하들까지 덩달아 멈춰 발아래를 본다. 조금 전 유골이 깨진 곳.

해철 :그거 달라우!

얼른 배낭을 털어 해철에게 던지는 병구.
부하들의 엄호 하에, 해철이 유골을 모아 담는다.

전경) 총격을 가하며 밀고 올라오는 추격대.
기마대가 언덕에 겨우 말들을 올리자, 어흠- 말에 오르는 아라요시.
조장이 그런 그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땀을 줄줄 흘리며 유골을 모아 담는 해철.
각자 나무 하나씩 붙어서 총격을 가하는 자현과 재수, 아가리, 길산 등 부하독립군들.
날아드는 탄에 나무가 퍽퍽 터지며 정신없다.

부하들 : “나 똥싸것소!” ... “나돈디!” ... “엄호할게 나만 믿구 싸!” ... “건디 밀 뚱을 게 없져!”
병구 : (일본어)(벼락 고향) 어이! 일장기 좀 빌려줘!!!

해철, 부지런히 담으며 킁킁킁-
유골을 깨끗이 모아 담았다.

57. 언덕 위 / 낮

병구와 헤어졌던 장소, 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유키오.
불쑥 해철과 병구, 자현, 부하들이 튀어 오르듯 올라선다.

병구 : (일본어) 오갱끼데스까~

반응 없는 유키오에게 달려들어 살펴보면, 정신을 잃은 유키오. 칼 맞은 배에서는 여전히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희미하게 눈을 뜨는 유키오, 잠시 해철을 보는 듯...하다가...이내 숨을 거둔다.

해철 : 아...이썬끼...

쌈살히 보던 해철, 아직 손에 꼭 쥐고 있는 지로의 와키자시(할복용 칼)를 떼어내려는데,
얼마나 강하게 쥐고 있는지, 간신히 떼어낸다.
순간, 나뭇잎이 가루처럼 터지며, 밀려오는 월강추격대.

응사하며 물러서는 독립군들,
유기오를 바라보던 해철, 씩씩한 시선을 거두며 후퇴.
총탄이 빗발치는 숲속을 빠르게 질주하는 해철(들).
뒤로 100여명의 월강추격대가 무서운 속도로 숲을 밟으며 쫓고 있다. 조감.

병구 : 성님, 쪽바리 새끼들 대가릿 수가 너무 많은데?...

해철 : 장하 새끼래 제 위치에 가 있잖지?

58. 고려령 숲, 평지, 산사면 중턱 봉우리 / 낮

턱까지 차오른 숨을 뱉어내며 이제 막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서는 장하.
#15에서 독립군 포로와 같이 있던, 장하가 무덤을 만들었던 그 장소다.
언덕 아래, 개미떼처럼 모습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일본군들.
언덕의 해철과 자연, 부하들,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간신히 산사면 중턱 봉우리에 올라서고,
장하의 부하 포수들이 산사면 중턱에서 매복해 있다가 이들을 엄호 한다.

조장 : (일본어) 정지해야합니다!

아라요시 : (일본어) 적은 겨우 삼십이다! 깡그리 쓸어버려!

싸늘하게 공격진을 꾸린 아라요시와 일본군들이 봉우리를 포위하고 점점 좁혀든다.
해철과 독립군들, 일본군들에게 거의 잡힐 듯,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 모습을 담담히 내려다보는 장하. 갑자기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무덤 속에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맥심 기관총... 완전 자동식 맥심 기관총이 화력을 퍼붓기 시작한다.
일대혼란으로 일본군들은 별 저항도 못하고 기관총 세례에 그야말로 벌집이 된다.
그 사이, 봉우리로 뛰어 올라 온 해철과 독립군들.

해철 : 척탄.

동시에 수류탄을 던지는 독립군들.
퍼퍼퍼퍼 - 터지며 나뒹구는 일본군.
숲에 숨은 아라요시는 목이 터져라 “퇴각”만 외친다.
뒤늦게 후퇴를 하며 숲으로 파고드는 일본군들.
언덕 아래는 시신들로 거멓고,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간신히 숲 속으로 숨어들어 허겁지겁 잔존 남양수비대를 추스르는 아라요시.
각자 주인 잃은 말들을 세워 잡고 달아날 준비.
몇 안 남은 추격대 병사들이 그런 아라요시를 멍하게 본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조장이 아라요시와 눈이 마주치자,

아라요시 : (일본어)(조금 미안한) 쩌... 반드시 놈들 목을 가져오지... 하얏!(박차)

숲으로 사라지는 아라요시와 잔존 수비대.

조장 : (일본어) ...니 목이나 걱정해라. 빠가야로... (숨이 끊어진다)

자막 『고려령 / 월강추격대 70여명 사망』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는 해철. 멀리 추격대 본대가 보이고,

59. 월강 군막 / 낮

지로의 허리춤. 장검 옆에 빈 와키자시 칼집. *해철이 가지고 있다.

어깨에 소독약을 붓자 고개를 돌려 옆을 보는 지로. 고통인지 분노인지 모를 표정.

그의 시선을 따라, 군막 주위에 즐비한 일본군 시신들.

말에 오른 쿠사나기와 월강포수들, 겐쇼와 제1 기마대가 출전 직전의 모습이다.

(일본어)

지로 : 쿠사나기, 넌 상촌과 봉오동 골짜기 깊은 곳까지 가서 본대의 매복이 있는지, 도주를 했는지 살펴보고! 겐쇼 너하고 제1 기마대는 즉시 고려령을 크게 돌아 비파동 골짜기로 가서 도주로를 막고 놈들을 포위 해!

쿠사나기, 겐쇼 : 하이!!!

지로 : (피식)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하는 놈들이다.

60. 숲길 / 낮

매서운 속력으로 달리는 쿠사나기의 군마.

척후 기마병1,2와 정예 월강포수 15명의 군마도 쿠사나기를 따르고,

그 뒤를 달리던 겐쇼와 30여명의 제1 기마대가 옆길로 갈라지며 비파동 방향으로 달려 나간다.

61. 산중턱 평지 / 낮

언덕 평지를 달리는 쿠사나기 기마대.

달리던 월강포수1이 좁은 협곡 아래를 살핀다.

희끗희끗, 스치는 가지 너머로 무언가 나부끼고, 클로즈업. 진성과 개똥이 탄 말이다.

쿠사나기도 이미 그쪽을 보고 있다.

쿠사나기 : (일본어)(씨익, 웃는) 진짜 병력이 뭔지 보여주지. (척후병 둘을 가리키며) 너희 둘은 상촌으로 가서 매복이 있는 지 깊은 곳까지 살펴라.

척후 기마병1,2 달려가면,

쿠사나기 : (일본어) 독립자금을 메고 있는 놈, 잡을 수 있겠나.

말에서 뛰어내려 신속히 총을 빼 집는 월강포수1.

독립자금 상자를 메고 있는 진성의 말에 총구가 따라가다, 탕-

62. 협곡 아랫길 / 낮

휘청- 겨우 고삐를 잡는 진성.

방금 총탄이 날아든 곳을 보는 개똥.

앞서 달리는 진성에게서 날린 피가 후드득 옷에 묻는다.

개똥 : (아빨싸) 아저씨...

더욱 속력을 내는 진성.

63. 언덕 평지 / 낮

빠르게 진성의 뒤를 쫓는 쿠사나기 군마들.

언덕과 아랫길의 사이가 점점 좁아지며 길이 만난다.

저만치 코너를 돌며 사라지는 진성과 개똥의 말이 보인다.

64. 코너 / 낮

진성이 사라진 코너를 도는 기마대.

탕- 부하 하나가 말에서 떨어지며 구른다.

군마들 포호하며 급히 멈추어 선다.

코너 안쪽에, 진성이 피를 흘리며 홀로 권총을 재장전 중이다.

이번엔 월강포수1의 총이 더 빨랐다.

가슴을 맞는 진성.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쿠사나기를 노려보더니,

진성 : (재빨리 총구를 겨냥) 대한독립!!!

쿠사나기의 권총과 동시에 발사. 타탕-

탄환이 쿠사나기의 목을 스치며 피를 낸다.

눈이 시리게 맑은 하늘을 보던 진성. ...폴썩 쓰러진다. SLOW.

쿠사나기 : (일본어)(목에 피를 닦으며) 이상한 놈이다. 웃다니...

월강포수1이 말에서 뛰어내려 죽은 진성을 살핀다.

월강포수1 : (일본어) 독립자금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드드드드 말소리. 모두 소리가 나는 쪽을 본다.

저 앞, 독립자금 상자를 어깨에 멘 개똥이 탄 말이 숲 밖으로 불쑥 튀어나가 평원 쪽으로 달리고, 뒤로 아라요시와 잔존남양수비대가 우르르 쫓고 있다.

쿠사나기 : (일본어) 포라이...애 쓰는 군...

65. 평원 / 낮

푸르륵 푸르륵 거친 숨소리를 내며 개똥/춘희를 태우고 달리는 말.
뒤로 아라요시 남양수비대가 바짝 쫓고 있다.
옆구리를 치듯 나타나, 나란히 달리는 쿠사나기 기마대.
개똥이 움찔 놀라지만 겨우 진정하고 집중한다.
먹이를 두고 경쟁하듯 달리는 아라요시와 쿠사나기. 조감.
개똥의 얼굴 옆으로 총탄이 매섭게 스치고 두려움에 춘희의 얼굴이 굳는다.
춘희가 개똥의 허리를 꼭 껴안는다. 이를 악물고 박차를 가하는 개똥.

개똥 : 말똥아 힘내! 으랏!

66. 협곡 언덕 / 낮

망원경 시점- 멀리 달리는 개똥의 말이 보인다. 바로 뒤를 쫓는 아라요시/쿠사나기.

병구 : (망원경 떼고) 협곡으로 오지 말했는데!

해철 : 막혔잖지.

장하, 잠자코 생각하더니,

장하 : 작전... 바꿀테니까 잘 들어!

해철 : 어드레?

장하 : 형하고 부하들, 병구형하고 포수들, 그리고 나 이렇게 셋으로 분대를 쪼개고 나머지 분대는...
(둘러보는데 딱히 맡은 사람이 없다)

자현 : (나서며) 내가 맡을게요.

장하 : (끄덕이며 지도를 펼치고) 병구형하고 포수들은 이쪽 능선 아래, 형하고 부하들은 봉오동 골짜기로
가기 전에 독수리 계곡으로 가서...

해철 : (대뜸) 네래 와 혼자가?

장하 : 건장 찬 거 안 보여? 내가 상관이야!!

해철 : 건장차고 날뛰다가 제일 먼저 총 맞아 죽는 거 몰라? 간나 새끼래, 하나 밖에 없는 모가지 하찮게
굴었다간 나한테 먼저 디질 줄 알라우!

병구,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병구 : 잡히겠는데...

67. 좁은 숲길 / 낮

좁은 숲길을 달리는 개똥의 말. 상당히 빠르다.
쫓는 아라요시와 남양수비대.
앞서가는 아라요시를 힐끔 보는 쿠사나기. 묘한 쓴웃음을 짓는다.

68. 절벽 언덕 / 낮

절벽 앞에서 멈추는 개똥, 사방이 급경사 비탈로 막혀 있다.
뒤로 남양수비대가 이쪽을 향해 돌진 중인 것이 보인다.
그때 휘익- 호각 소리. 절벽너머에서 들렸다.
그러자 호각 소리를 들은 개똥의 말이 경사진 절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경충 경충 올라서는 말. 말목을 안고 버티는 개똥/춘희.
개똥이 절벽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도착하는 남양수비대.
일제히 말들이 올라가기를 거부, 앞발을 치켜들며 푸르르거린다.
말에서 내려 더듬더듬 절벽을 오르던 아라요시가 뒤를 힐끔 본다.
쿠사나기의 기마대가 말을 탄 채 절벽 위를 오르고 있다.

쿠사나기 : (일본어) 이거 원 딱해서...

위험하듯 아라요시를 스치며 오르는 군마들.
어느새 절벽 끝에 오른 쿠사나기, 뭔가 발견한 얼굴. 보던 망원경을 눈에서 떼며,

쿠사나기 : (일본어) 일거대박이군.

이제야 절벽언덕에 올라서는 아라요시도 아래를 내려다보면,
150 ~ 200미터 간격의 좁은 협곡이 펼쳐져 있고, 협곡 아래로는 숲이 우거져 있다.
스윽 망원경을 건네며 한쪽을 가리키는 쿠사나기.
잠시 쿠사나기를 노려보다가, 망원경을 받아드는 아라요시.
망원경으로 보이는 협곡 중앙, 아래 숲으로 개똥의 말이 쏙 들어가며 사라진다.

쿠사나기 : (일본어) 아니아니... 피레미는 버리고. (망원경을 조금 위로 치켜들어준다.)

망원경 - 건너편 절벽 중턱에 이동하는 병구와 독립군 무리들이 보인다.

쿠사나기 : (일본어) 무작정 덤벼들었다간 또 뽀에 말릴 게 뻔하지. 그건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아라요시 : (일본어) 어찌라고?

쿠사나기 : (일본어) 내가 여기에서 사격을 할 테니까...그 쪽은 숲 아래쪽에 매복 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놈들을 처리하라구.

아라요시 : (일본어) 여기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우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릴 텐데?

쿠사나기 : (일본어)(웃음) 그 정도 구분도 못할까봐? 실패를 만회 할 수 있는 기원데, 싫음 말고.

아라요시 :

69. 협곡 아래 숲 / 낮

달리던 개똥의 말이 어디선가 휘익- 호각 소리에 멈춘다.
숲 한 쪽에서 해철과 부하 독립군들이 튀어나온다.

해철 : (말을 세우며) 아저씨는?

개똥 : (눈물이 그렇그렇 고개를 젓는다) ..

해철이 유골봇짐을 춘희의 등허리에 단단히 매주고,

해철 : 서둘러 가라.

말 엉덩이를 세차게 갈기면, 개똥의 말이 급히 출발하고,
해철과 독립군들도 빠르게 숲으로 스며든다.

70. 협곡들 / 낮

협곡 오른편 산중턱. 일렬로 성큼성큼 달리는 병구와 다섯의 독립군.
절벽 안쪽 사각지대로 들어서면, 장하와 독립군 포수1,2,3,4,5가 기다리고 있다.

장하 : (망원경을 떼며) 됐어. 놈들이 봤어, 이제 그만 뛰고 숨어!

굴곡은 없으나 경사가 깊고 길게 이어진 내리막길. 거의 낭떠러지 수준.
절벽 아래 내리막길을 보는 장하, 병구, 독립군들.

장하 : (총을 건네며) 바람이 역풍이라 유효거리는 400미터쯤 될 거야.

포수1 : 맞아도 들 아프겠죠?

병구 : 들 아프게 죽겠지...(밀을 보다가) 근데 야... 좋은 생각 아니다 이거.

CUT TO

장하와 병구가 있는 반대 쪽, 쿠사나기가 있는 협곡 산중턱.

낮은 자세로 포지션을 잡는 월강포수 15명.

쿠사나기는 좀 더 아래쪽에서 골짜기 벽을 살핀다.

쿠사나기 망원경 - 이번엔 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쿠사나기 : (일본어)(망원경을 떼고 가우똥) 조센징... 사라졌다...

CUT TO

장하가 있는 오른쪽 협곡과 쿠사나기가 있는 왼쪽 협곡 아래, 사이에 있는 숲속.

사박사박 숲을 거니는 남양수비대. 맨 뒤에, 아라요시. 이래저래 불안한...
그들 앞 고요한 수풀, 스산한 바람이 불고,

CUT TO

장하가 있는 협곡 산중턱.
무장 해제 중인 장하. 팔꿈치를 걷고 구두끈과 깃을 고쳐 맨다.

병구 : 안되겠다. 같이 가자. (덩달아 신발 끈을 묶는다) 총알도 나눠맞으면 살아.

장하 : 나서지 마. 작전대로 치고 빠지기나 잘 해! (허리에 단검을 꼭 채우며)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른 놈이...

부하 포수들과 눈짓으로 사인을 주고받더니, “나야” 하며 밑으로 몸을 던지는 장하.

CUT TO

SOUND ON / 둥둥둥 울리는 퍼커션.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장하.

CUT TO

동시에 협곡 아래 숲에서 개똥의 말이 전속력으로 튀어나온다.

CUT TO

쿠사나기가 있는 협곡, 산중턱 월강포수 스코프가 개똥의 말을 따라간다.
쿠사나기 망원경이 개똥의 말을 따라간다.
순간, 망원경을 떼는 쿠사나기. 번쩍 건너편 장하를 발견한다.
망원경을 보는 쿠사나기 시점으로 언덕을 미끄러지는 장하. 팔의 건장으로 클로즈업.

쿠사나기 : (일본어) 절벽 아래로 뛰는 놈! 저 놈이 대장이다. 근데 다른 놈들은 어디가고 왜 혼자지?

장하를 발견한 월강포수들의 총구가 개똥에게서 일제히 상승, 건장을 찬 장하로 이동.
쿠사나기 망원경 시점, 달리던 장하가 어느 순간 정확히 이쪽을 힐끗 본다.

쿠사나기 : (일본어) ?? ...놈이 ...봤다..

아뿔싸, “우리가 매복 한 걸 알고 있다”

쿠사나기가 말리기도 전에 포지션을 잡고 있던 월강포수들의 총에서 불이 뿜는다.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는 장하의 옆으로 탄들이 박히고,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장하.

CUT TO

한편, 협곡, 아래 숲속. 약속한 총성으로 착각한 아라요시와 남양수비대원들.

아라요시 : (일본어) 시작했군. 준비해!

말 끝나기 무섭게 주변 수풀 속에서 스윙 총구와 함께 몸을 일으키는 자현과 독립군 매복조 20여명.
독립군들의 귀신같은 매복에 얼이 빠진 남양수비대.
“하..함정!” 충격이 퍼부어지고, 우수수 자지러지며 쓰러지는 남양수비대.
아라요시와 몇몇은 두더지처럼 바닥을 기며 달아나고,
뒤 쫓으며 총을 쏘는 자현, 기어 달아나는 아라요시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웃하다,
마구잡이로 쏘대며 달아나는 남양수비대의 총질에 나무 뒤로 몸을 피한다.

CUT TO

그 사이, 협곡 샅길을 쓴살같이 달려 나가는 개똥의 말.
유골봇짐과 개똥을 꼭 끌어안은 춘희와 독립자금 상자를 멘 개똥.
이윽고, 개똥/춘희가 탄 말이 협곡 좁은 길로 무사히 빠져나가고,

CUT TO

썩- 썩- 썩- 아찔하게 장하의 몸을 스치는 탄환들.

장하 : 됐다.

순간, 쿠사나기가 있는 왼편 산중턱이 한 눈에 들어오는 오른쪽 산중턱.
벽과 벽 사이 좁은 그늘에 몸을 그대로 얹혀하고 숨어 있던 병구와 독립군 포수1,2,3,4,5의 총구.

병구 : 하나, 둘, 사격.

오차 없이 동시에 격발. 우레와 같은 총성.

CUT TO

쿠사나기가 있는 반대편 협곡 산허리.
아찔한 쿠사나기 시선으로 화면 빠르게 따라가고,
개똥의 말이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는 쿠사나기, 아차 싶은 얼굴로 돌아보면,
월강포수 여섯이 바람 빠지듯 늘어진다.
그제야 눈치를 채고 벌떡 일어나는 쿠사나기.

쿠사나기 : (일본어) 함정이다. 피해!!! 대장 놈이 우릴 유인하고 나머지 놈들은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연이은 충격에 이번에도 여섯이 고꾸라지며 언덕 밑으로 구른다.
월강포수1,2,3만 살아남아서 수풀을 허겁지겁 기어 나온다.

월강포수1 : (일본어) 중위님을 보호해!

월강포수2,3이 쿠사나기를 향해 달려간다.
월강포수2,3이 절벽에 사격을 가하며 쿠사나기를 엄호한다.
그때, 덩불에 숨어 상황을 살피는 월강포수1.
반대편 절벽 그늘 틈으로 클로즈업. 총격의 위치를 짐작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옮기면, 숲 경계에 거의 다다른 장하가 눈에 들어온다.
일단 절벽 그늘을 향해 한발 발사-
월강포수1의 총탄이 독립군 포수1의 어깨를 타격한다.

CUT TO

병구와 독립군 포수들이 있는 절벽 그늘.
모두 잠시 엄폐, 월강포수1이 장하 쪽으로 뛰자 병구도 뛰어 내려간다.

병구 : 엄호해.

월강포수가 있는 산허리와 병구가 있는 산허리, 숲 경계 교차.
월강포수1. 수평으로 달리며, 저만치 장하를 주시.
마찬가지 병구도 달리며 월강포수1을 주시.
멈춰선 월강포수1. 장하에게 총구를 겨누려다 언뜻 병구를 발견.
월강포수1의 스코프 시점 - 병구를 겨누다가... 결국 장하에게로 이동...
이마에 흐르는 땀... 발사 -
탕! 날아든 탄이 장하의 어깨를 찢으며 휘청-
가까스로 숲으로 몸을 날리는 장하, 피를 뿌리며 데굴데굴 구르고,
월강포수1, 총을 내리고 병구 쪽을 바라보며 체념.

월강포수1 : (씨익) ...

월강포수1의 머리가 터진다.
잘각- 탄피를 털어내는 병구.

71. 봉오동 하촌 입구 / 낮

병구가 쏜 총소리를 메아리로 들으며 빠르게 달리는 해철과 부하들.
선두를 이끄는 해철, 달리면서 하늘을 보면, 독수리 떼가 하늘을 맴맴 돌고...

해철 : 독수리 계곡이야...멈추라우!

해철이 우거진 숲으로 몸을 숨기고, 재수, 아가리, 길산, 부하들도 재빨리 몸을 숨긴다.
이제 막 하촌 입구를 지난 월강추격대 본대가 봉오동 중촌 골짜기를 향해 진격한다.
줄지어 진격하는 제복 군들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들.
그들 사이로, 문득 문득 보이는 호치키스 기관총과 41식 산포들.

해철 : 호치키스 기관총에 산포까지...고조 쉰 놈들 싸그리 몰고 왔구나야...기진 길코 기다리는 님은...

재수 : 성님, 그 님 말이오, 독립군 포로, 일본놈덜 천지에 깔려는데 어떻게 탈출을 한다는 거우파?

해철 : 이쯤에서 수작을 부려서 뒤로 처진다고 하지 않았네. 우린 기때를 노려서 구하기만 하몬 되는 기야!

**아가리 : 그기 중요한기 아이고 성님..우리가 그 님을 구해서리 병구 아새끼를 만갓구 곧바루다 상촌 골짜기루
넘어 가문.. 장하 가가 혼자 남을게 뻔한데...돌대가리가 아이 구서야 지 혼자 뭘 할라구 매복조**

아들마저 전부 상촌 골짜기루 넘어가라구 시켰 당기요. 꼼짝없는 혼잘긴데??

그때, 해철의 눈에 들어오는 본대 후미. 사토의 군마에 묶여 고깃덩어리처럼 질질 끌려오는 독립군 포로가 보인다.
이미 죽은 듯 꼼짝임 없이 늘어진 독립군 포로.

해철 : 한 발 늦었잖아...

안타까운 눈으로 독립군 포로를 보던 해철, 지로를 향해 말을 달려오는 #61의 척후기마병1을 본다.
거리가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해철. 척후기마병1이 지로에게 다가서며,

척후병1 : (일본어) 상촌과 봉오동 모두 급히 떠난 흔적만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능선과 골짜기
깊은 곳 까지 모두 살펴보고, 척후병 하나를 남겨 놓았습니다.

지로 : (일본어) 삼십육계대! 러시아 국경을 넘기 전에 반드시 잡는다! 서둘러!

지로의 명령에 지체 없이 튀어 나가는 기마 부대들.

지로 : (일본어)(독수리 떼를 올려다보며) 피 맛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군...던져 줘.

군마와 독립군 포로가 연결된 밧줄을 끊는 월강조장 사토.
씨익 웃는 얼굴로 이미 움직임이 없는 독립군 포로의 배를 가르자 묵직한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가리와 재수가 놈들에게 뛰쳐나가려는 해철을 온 몸으로 붙들며 막는다.
엄청난 병력과 화력의 월강추격대가 봉오동 상촌 골짜기를 향해 빠르게 진격해가고,
독수리들이 하늘을 향해 누워 있는 독립군 포로 위에 내려앉는다.
월강추격대 후미까지 사라지자 해철을 놓아주는 아가리와 재수.
분노서린 눈으로 독립군포로를 바라보던 해철이 갑자기 튕겨 나간다.
보면, 하늘을 향해 누워 있던 독립군 포로가 어느새 엎드려 있다.

아가리 : 아직...숨이 있다...

독립군 포로에게 달려들며 독수리들을 쫓는 해철.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독립군 포로가 해철을 알아보고 입술을 달싹거린다.

독립군 포로 : 봉...봉오동 상촌 골짜기에 독립군은....없...소...

해철 : ..그기 무슨?...

독립군 포로 : 자...장하....

해철 : ..?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독립군 포로의 입술에 귀를 바짝 대는 해철.
안간힘을 다해 해철에게 몇 마디 더 남기더니, “어..엄..니...우리 엄니...” 부르더니, 숨이 끊어진다.
독립군 포로의 눈을 감겨주고, 달려 온 부하들에게 몸에 두른 무기들을 전부 건네주는 해철.

해철 : 장하 이 새끼래 콩콩이를 알았어! 물어 주고 뒤따라오라!

항일대도를 움켜잡더니, 상촌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튕겨 나가는 해철.

72. 숲 경계 / 봉오동 상촌 입구 / 낮

피를 뚝뚝 흘리며 상촌 경계로 접어드는 장하, 총 맞은 어깨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달린다.

뒤 이어 월강추격대 전위대로 상촌으로 접어들고, 장하를 쫓던 월강포수23과 합류, 장하를 쫓는다.

“어딴? 놈은 총도 없다!” 사방 숲에서 나타난 일본군들이 장하를 포위하고 좁혀든다.

어느 새 나무에 올라 몸을 숨긴 장하, 한 손은 상처를 감싸 쥐고, 다른 한 손은 나무 위로 뻗는다.

위로 뻗은 손에 닿을락 말락, 장하가 나무 위에 묶어 숨겨 놓은 총들이 보인다.

그때, 상처를 감싼 장하의 손에서 피가 흘러 떨어지고, 나무 아래를 지나는 일본군의 광대 뼈 위로, 뚝!

흠칫, 장하를 발견하는 일본군, 총을 겨누는 순간 탕, 장하가 쏜 탄에 쓰러진다.

나무에서 뛰어내려 숲 밖으로 달리는 장하.

사냥감을 쫓듯 사방에서 장하를 쫓는 일본군들.

73. 숲 길 / 낮

이를 악물고 숲을 달리는 해철.

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린다.

INS) 독립군 포로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귀를 바짝 댄 해철.

해철 : 그 아 새끼래 상촌까지 끌고 간 추격대한테 고립 되고, 거기서 죽을 때 까지 버티는 게 임무라고?

독립군 포로 : 독립군들이 봉오동 상촌에 매복해 있으면..척후병을 보낸 추격대가 눈치를..(쿨럭, 피를 쏟으면)...

INS) 작전 사령실에 모인 뒷모습의 장군들과 봉오동 전투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는 장하와 독립군 포로.

목소리1 : (지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이곳 봉오동에 매복해 있잖아 척후병을 보낸 추격대가 눈치를 쫓 게 분명 하다. 허튼 아무리 추격대 새끼들을 잘 끌고 와도 포위망 안으로 안 들어올게 뻔하잖디..

목소리2 : 그러니까 놈들을 끌고 온 이장하 1분대장이 척후병들이 다녀갈 때까지만 여기, 상촌에서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주면, 그 틈에 봉오동 능선 너머에 있던 우리들이 능선을 넘어와서 죽음의 골짜기까지 밀고 들어 온 추격대 아 새끼들 대가리에 총알 세례를 퍼부어 주갓쎄!

INS) 기억의 초점이 점차 흐려지는 독립군 포로의 눈. 바짝 들이 댄 해철의 귀에 마지막 말을 내뱉는다.

독립군 포로 : ...허나...내가 마지막으로 본..독립군이 백이..안 됐으니까..만약...그 수가 늘지 않았다면...지금 월강 추격대의 병력과 화력을 파악하고...전부..러시아 쪽으로 퇴각했을 거요...어서 피하시오...

해철 : 기리타문, 작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장하 이 간나 새끼래...

독립군 포로 : 죽을....거..요...

해철 :!!!

74. 협곡 / 낮

상촌 골짜기로 넘어가는 협곡 중턱에서 해철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서성이던 병구.
협곡의 물길을 따라 아래로 달려 내려간다.

병구 : 내려가자! 해철이 성님 안 오는 거 보니까 일 틀어졌다.

독립1 :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요? 장하 분대장이 곧장 봉오동 상촌 골짜기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병구 : 황해철이 그 인간 동생 만나러 갔어, 뻔 해!

촌민3 : 어릴 적, 죽은 동생 말고 동생이 또 있습니까?

75. 숲 경계 / 봉오동 상촌 입구 / 낮

피를 흘리며 숲에서 빠져나오는 장하, 연막탄들을 터트리며 상촌 마을로 필사적으로 달린다.

토끼몰이 하듯 장하를 쫓는 일본군들.

일본군들을 향해 총을 쏘며 달리는 장하, 토사가 무너진 담 안으로 몸을 던진다.

고요한 텅 빈 마을. 일본군들 두리번두리번.

연막이 벌어지며, 불현듯 사람형체의 실루엣 몇 개가 나타난다.

움짔 총구를 세우는 병사들. 탕 - 엉겁결에 총을 발사하는 병사. 허수아비다.

총소리에 힐끗 밖을 내다보는 장하, 탄창을 살펴보면 총알이 없다.

일본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장하, 옷을 벗으면, 온몸을 휘감은 폭탄들.

76. 숲 경계 / 낮

물길을 따라 협곡을 내려오던 병구, 저 멀리 보면, 앞서 가던 10명의 일본군들을 쓰러트리며 달리는 해철이 보인다.

탕- 일본군이 쏜 탄에 해철의 옆구리가 터진다.

쓰러졌다 일어서는 해철, 달려가던 속도 그대로 총을 쏜 놈의 목을 항일대로 썩둑!

병구와 독립군들, 총을 쏘며 해철의 앞길을 틈워주는데, 병구와 독립군들도 총알이 거의 떨어졌다.

그 수가 점점 늘며 해철의 앞길을 막는 일본군들.

77. 상촌 마을 / 낮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밖을 살피는 장하. 피를 많이 흘려 자꾸만 정신이 혼미해진다.

폭탄을 움켜 쥔 장하. 일본 놈들의 움직임에 살피다가, 투척!

광~ 농가가 폭발하며 은폐해 있던 일본군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날아간다.

투척, 광! 투척, 광, 연달아 폭탄을 던지는 장하.

또 하나의 폭탄을 손에 쥐고 동태를 살피는 순간,

뒤에서 은밀하게 나타난 월강포수3이 장하의 어깨에 총검을 꽂으며 으아아!!! 밀어붙인다.

고통스럽게 뒷걸음질 치다가, 월강포수3의 옆구리에 단검을 박으며 주저앉는 장하.

월강포수3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고,

장하, 폭탄을 집어 드는데, 누군가의 발이 장하의 턱을 발로 간다. 퍽-

암전. SOUND OFF

F. I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총소리. 비명소리들, 비현실처럼 장하의 귀에서 점점 멀어지고,

반대로 점차 선명해지는 시끄럽게 지줄대는 새소리.
장하의 옆구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하늘을 보는 장하.
밝은 해를 보는데, 그곳에 희미한 여인의 잔상이 나타난다.
어릴 적 누이다. 누이가 물에 젖은 옷을 짜내 피땀한 장하의 입술을 적셔준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물을 받아먹는 장하, 누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장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때, 스르릉- 칼을 뽑는 소리.
칼을 쥔 검은 그림자가 여인을 가리며 덮는다.

장하 : 비켜... 누나 좀 보게.

썸뻑- 그림자가 칼을 휘두른다. 쿠사나기다.
쿠사나기의 칼날이 장하의 심장에 박힌다.
순간, 청강- 일본도를 놓치며 3미터쯤 날아가 나뒹구는 쿠사나기.
화면가득 또 다른 누군가의 칼...
단검이 박힌 채 앉아 있던 월강포수3이 칼 쪽으로 총을 겨눈다. 탕-
먼저 날아든 탄에 목을 맞고 썩썩... 늘어지는 월강포수3. 짹- 재장전하며 저 멀리서 달려오는 병구.
그리고 장하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두꺼운 칼날의 글귀. 방금 전 충격에 지이잉- 우는 소리.

或重于泰山 혹중우태산
或輕于鴻毛 혹경우홍모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처럼 가볍다.>
바로 해철의 칼이다.

장하를 포위했던 일본 놈들을 해치우며 달려오는 병구와 장하의 부하 독립군 포수들.
뒤늦게 도착한 재수, 아가리, 길산 등 해철의 부하들, 우르르 주위를 에워싸고,
부스스 몸을 일으키는 쿠사나기. 해철과 마주선다.
장하, 해철을 보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눈이 붉어진다.

병구 : ...썰까.

해철 : ...

대담대신 해철이 칼끝으로 쿠사나기의 칼을 던져준다.
날아온 칼 손잡이를 가뿐히 잡아드는 쿠사나기.

병구 : (오... 하는 표정으로 해철을 본다.)

쿠사나기, 전에 없던 진지함이 묻어난다.

쿠사나기 : (일본어) ...사람 눈이 어찌 그럴까..... 무엇이 너를 그리 만들었나?

해철 : 야가 지금... 뭐라네?

병구 : (툭 던지듯) 죽고 싶대.

병구 말이 끝나자, 흐앗! 쿠사나기가 칼을 세워 돌진.

썩-

해철의 항일대도가 두 동강. 반쪽 날이 공중으로 돌며 솟구친다.
바닥의 풀에 분사되는 핏방울들. 장하, 병구, 독립군들 얼굴을 스치고,
화면가득 해철의 얼굴. 과거 상처 부위가 또 길게 찢어졌다.

해철 :

연이는 동작으로 칼을 내리치는 쿠사나기. 해철의 왼손이 그의 손목을 툅 잡더니,
남은 손이 지로의 와키자시를 빼어 쿠사나기의 배를 갈라낸다.
후드득 맨 땅으로 덩어리들이 쏟아진다.

해철 : (무심히) 겁해 말라. 받은 거 고대루 돌려주는 거니까.

주저앉으며 해철의 허벅지에 이마를 기대는 쿠사나기.
어느새 피 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맴맴 모여들고...

CUT TO

멀찌감치 숨어서 지켜보는 아라요시. “미개인 미개인 미개인.....”

78. 상촌 입구 / 낮

상촌 입구로 접어드는 월강추격대 본대.
피 맛에 굶주린 맹수의 얼굴로 선두에 서서 말을 달리는 지로.

79. 상촌 마을 꼬트머리 / 낮

해철의 부축을 받으며 고개 언덕을 넘는 장하, 피를 줄줄 흘리다가 이내 쓰러지고,
상처가 깊은 장하의 옆구리를 치료하는 병구, 소독 후 맨살을 꿰매는데,
이를 악물고 신음하면서도 해철을 보는 눈만은 따뜻하다.

장하 : 형, 곧 월강추격대 본대가 들어 올 거야!

해철 : 아가리 닫고, 같이 살아서 따뜻한 남쪽 댄 끝으루 가자, 가서 나랑 고기나 잡구, 간나들이나 꿰러
다니자우. 느하고 내래 나서문 간나들 줄 설기야.

장하 : (피식) 난..임무가...

해철 : 니 임무래 벌써 해치웠어! 이정도 시간 끌어 뒀음, 독립군들 벌써 러시아로 넘어가서 발 뺀고 자고
있을 거이야!

그때, 해철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뒤늦게 쉬익- 소리.

해철 : 앞드려!

핑- 핑- 핑-

박격포가 날아든다.

해철 : ...많이두 물려 왔구나야..

병구 : 다 왔어. 저 앞에 상촌 골짜기야. 빨리!

언덕 밑을 보다가 장하를 부축해 일어서는 해철. 고개 언덕으로 날아든 포탄이 펑펑 터지고, 독립군들이 신속히 뒤로 빠지며 연막탄을 사방에 깬다.

80. 상촌 마을 - 독립군 훈련장 / 낮

마을 입구. 연막안개, 부연 흙먼지.

말발굽 소리가 먼저 들리다가, 월강추격대 본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로의 어깨를 따라 말과 함께 움직이는 화면.

운동장 한 가운데 칼 한 자루가 쓸쓸히 꽂혀 있다.

와키자시(지로 본인 것). 칼날에 뽀뽀뽀뽀 ‘대한독립만세’ 피로 쓰인 문장.

사토가 칼을 뽑아 바치면, 카~악! 침을 뱉어 ‘대한독립만세’를 속속 지워내는 지로.

상촌 마을 끄트머리. 독립군들이 돌담 사이로 하나둘 빠져나간다.

독립군들 거의 빠져나갔을 즈음, 지척의 독립군을 보는 지로.

먼지 너머, 바위처럼 서 있는...해철이다.

장하가 차고 있던 견장을 어깨에 차고, 보란 듯이 견장을 툭툭 두드리며 큰 소리로!

해철 : (메아리) 야마 도냐? 야마도냐~ 야마도냐~ 야마도냐~ 야마도냐~.

지로 : (일본어)(중얼) 오늘이... 저들 입으로 기록 되어져선 안 된다.

사토 : (일본어)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할...

날카로운 칼끝을 해철에게 겨는 지로.

지로 : (일본어) 한 놈도! 살려 두지마라!!! 모든 화력을 쏟아 부어!!! 돌격!!!

터지는 함성. 와아아아 - 추격대가 박차고 움직인다.

81. 마지막 추격 - 몽타주 / 낮

1. 무지막지한 총격을 퍼부으며 빠르게 쫓는 추격대.(육상 병들)

시아가 트이자 박격포를 세워 무지막지한 화력을 퍼붓는다.

2. 언덕 엄폐물에 숨어 몸을 낮게 까는 독립군들. 주위로 포탄이 펑펑 터진다.

타이밍을 노려 연막탄을 깔며 달리는 독립군.

3. 달리는 장하의 께맨 옆구리에 피가 터져 번진다. 해철이 그것을 본다.

4. 말을 탄 채 매섭게 소리치는 지로와 연막을 뚫고 나오는 추격대.
5. 장하가 넘어지자, 해철이 달려와 일으키고, 남은 연막탄을 모두 뿌리는 독립군들.
달리던 독립군들이 총을 제외한 무거운 배낭과 장비를 벗어던지고 전력으로 달린다.
6. 연막을 뚫고 나타나는 지로의 기마대. 거침없다.
7.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월강추격대의 움직임. 마치 먹이를 쫓는 뱀 같다. 조감.

82. 봉오동 상촌 골짜기 / 낮

달리던 장하가 휘청 쓰러지고, 해철이 장하를 들쳐 멘다.

해철 : 기운 내라!

뒤로 응전 사격을 하며 달리는 독립군들. 해철을 엄호하며 달린다.
병구가 허리춤 탄대에 손을 넣자, 텅 빈 탄대.

부하들 : (여기저기서) “총알이 떨어졌습니다!”...“나돈디!”...“똥져버리겠구만”

화면 가득, 해철의 얼굴.

해철 : (포효) 전력으로 뛰라!!!

83. 죽음의 골짜기 / 낮

이윽고 죽음의 골짜기에 접어드는 독립군.
장하를 들쳐 멘 해철이 골짜기 중앙을 달리다 다리가 풀리며 쓰러진다.
다시 장하를 들쳐 메고 달리는 해철. 터질 듯 숨소리. 하악, 하악!

해철 : (숨을 몰아쉬며) 형만 믿으라...형만...

장하 : (아련한 시선으로 골짜기 주변을 둘러본다) 죽음의.. 골짜기야...

희망 섞인 장하의 시선,
그러나 주변 산사면, 역시나 독립군의 낯새가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나 고요하다.
들리는 건 드드드드 일본군 말발굽 소리.
지로가 이끄는 사토와 기마대를 선두로, 살벌하게 모퉁이를 돌며 나타난다.
해철, 병구, 낭패스런 얼굴들.
달려오는 추격대를 보며 허탈해하는 독립군들.
쓰러진 해철에게 기대앉은 장하가 힘겹게 눈을 뜬다.
희미한 그의 시선. 추격대가 코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

장하 : 형...

해철 : 와 기대...

장하 : 우리 기억될 수 있을까...

해철 : 기림 물론이지... 오늘 하늘이 맑다... 더 잘 보구 계실거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해철, 그의 말대로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없다.
순간, 쉬익,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리자 해철을 덮치며 끌어안는 장하,
핑- 핑- 날아든 박격포탄에 튕겨나가며 흙먼지를 뒤집어쓰는 해철과 장하.
간신히 정신을 차린 해철이 달려들어 장하를 안아 일으키면,
장하의 한쪽 다리가 폭발로 날아가고 보이지 않는다.
해철의 손을 움켜쥐며 죽어가는 장하. 날 숨을 하아..하아..
해철, 온통 장하의 얼굴을 물들인 피를 닦아내며,

해철 : 괜찮아..장하야..괜찮아...(두리번) 병구!~ (미친 듯이) 병구!!! 빨리 와!...

병구 : (바닥을 기어와 장하를 안으면) 성...님...

해철 : 날래 살려 내라우..,동생이 성보다 먼저 죽음 되잖네? 기거이 한번으루 족해 무슨 수를 써서래두
살리라우

피가 꿀럭, 흘러나오는 장하의 다리를 틀어막아 지혈을 하는 병구.
해철이 죽어가는 장하를 병구에게 떼어놓고 추격대를 향해 일어선다.
핏덩이가 섞인 침을 손에 탁! 뱉어 문지르는 해철, 허리가 잘려나간 항일대도를 뽑아 굳게 말아 쥔다.
해철의 눈 앞, 하아아! 고향을 지르며 기마대 선두에서 달려오는 지로.
뒤로 추격대 육로병도 일발장전. 와아아!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죽어가는 장하를 마지막으로 속, 한 번 돌아보더니 추격대의 아가리를 향해 달려 나가는 해철.
추격대의 모든 총구가 해철을 향해 겨눠진다. SLOW.
산봉우리 어딘가. 추격대를 기다리던 #61의 척후 기마병2도 해철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 SLOW.
추격대의 중심을 향해 질주하는 해철. 으아아아아! 괴물 같은 고향. SLOW.
해철을 따라 움직이는 수백 개의 총구들. SLOW.

84. 산언덕 어딘가 / 낮

해철을 따라 이동하는 기다랗게 빠져나온 늙은 총구. *장하의 총과 생김새가 비슷한
총신 가늠자 위에 나비 한 마리 조는 듯 쉬고 있다.
구부정한 등허리. 방아쇠에 걸린 때가 낀 손톱.
뒤에서 다른 누군가의 음성.

음성 : 뱀 꼬리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손톱 : ...기래.

나비가 훌쩍 날아들고,
뱀의 머리를 향한 총구에서,
땅! -

골짜기를 휘어 치는 메아리.
달려오던 지로가 말에서 떨어진다.
월강추격대의 말들이 요란하게 멈춰 선다.
당황실색하는 일본군들.
땅에 떨어져 꿈틀거리는 지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휘- 둘러보면,
척후 기마병2가 서 있던 땅 속에 매복해 있다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는 독립군들.
산등성이 곳곳에 늘어선 독립군들. 앞 산, 뒷산, 옆 산에서 꾸물꾸물 한없이 터져 나오는데...

자막 『신민단. 국민회군. 군무도독부. 대한 독립군. 추산병력 도합 700여명』

그 위로, 문득 스치는 해철 음성,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 독립군이 될 수 있다아~”
화면, 해철의 얼굴에서

해철 : ~이 딸이다...

그리고 희미하게 되살아난 장하의 얼굴로 이동.

장하 : ...사격.

이윽고 산등성이 곳곳에서 총탄이 소나기처럼 퍼붓는다.
월강추격대는 이리저리 퇴각을 꾀하지만 달아날 곳 없이 이쑤시개처럼 쓰러져간다.
골짜기 주변 산등성이마다 총격으로 인한 연기가 자욱한 안개를 이루고,
겨우 숨이 붙은 일본군들은 뿔뿔이 질서 없이 언덕 숲으로 헤쳐 달아난다.
독립군들의 환호.
최진동, 안무, 강상모 등 전투의 최전선에서 독립군들을 이끄는 장군들..
숲에서 달려 나오며 장하를 호위하는 자현과 개똥, 장하의 부하 독립군들.
장하에게 황급히 달려들어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의무병들.
추격대가 버린 총을 들어 다시 싸우는 병구, 길산, 아가리, 재수 등 해철의 부하들.
바닥에 널브러진 육일승천기를 밟으며 달아나는 일본군들.
달아나는 추격대를 향해 가차 없이 총탄을 날리는 지로.

지로 : (일본어) 등을 보이지 마라! 빠가야로, 빠가야로, 빠가야로!!!!

하지만, 총구를 산등성으로 쳐 들고 마구잡이로 쏘 달 뿐.

지로 : (일본어) 눈을 뜨고 적을 똑바로 봐라! 기관총 부대! 박격포 부대 어디 있나!?

주위를 둘러보지만 기관총 부대는 모두 쓰러졌고,
지로가 숲속으로 뛰어 들면, 박격포부대가 간신히 살아남아 포탄을 날린다.
부상을 입고 기어 달아나던 부하들에게 칼을 겨누는 지로.

지로 : (일본어) 기관총을 들어라, 어서!

지로의 겁박에 기관총을 들고 독립군들을 향해 응사하는 일본군들.
그때, 숲을 헤치고 튀어나온 해철이 항일대도를 휘둘러 일본군들을 썰어낸다.
순간, 군도를 치켜들고 해철에게 달려드는 지로, 하지만 해철에게 빼앗긴 자신의 칼에 얼굴을 길게 베이고 만다.
광기에 사로잡힌 눈으로 해철을 알아보는 지로,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또 다시 마주서고,

해철 : 내래 대장 같구만! 내래 말 하문 통하잖네?

가소롭다는 듯, 씨익, 비웃음 짓는 지로.
숲에서 튀어나온 사토와 추격대들이 지로를 호위하며 해철에게 총을 겨눈다.
해철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 지로를 향해 던진다.
박격포를 쏘던 일본군들과 추격대가 몸을 던져 수류탄을 피하고,
앞으로 굴러 온 구라수류탄(쿠라마스 *くらます ‘속이다’가 새겨진)을 본 지로가 피식, 웃는다.

지로 : (일본어) 피하지 마라, 구라 수류탄이다!!!

움짔 몸을 피했던 일본군들이 해철을 향해 일제히 방아쇠를 당긴다.
순간, 거짓말처럼 파광!!! 폭발하는 구라수류탄!
강력한 폭발에 박격포가 날아가고 주변의 일본군들이 폭염 속으로 사라진다.
피범벅이 되어 비틀비틀 일어서는 지로.

해철 : 오랫동안 남의 나라 짓밟고 살았으니 우리 말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겠다....(쓸쓸한 미소) ...이제 전쟁 놀음 그만 하고 돌아가서...망상쟁이들로부터 백성이나 구하라우...결국 피를 보는 건 죄 없는 백성들 아니가쎄?...고거이 진정 애국이다...

빼앗았던 칼을 지로의 발 앞에 툭 던지는 해철, 말을 끝으로 돌아선다.
모욕감에 몸서리치던 지로가 칼을 집어 들더니 해철의 목을 노리고 또 다시 달려든다.
이미 예상한 듯, 해철이 슬쩍 피하더니 순식간에 칼을 빼앗아 지로의 배에 꽂아 넣는다.
벌컥, 피를 쏟는 지로, 눈 깜빡 할 새도 없이 수없이 베이며 구멍이 뚫린다.
이윽고, 졌다는 생각이 들며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지로.

해철 : 잘 새겼디? 칼로 선 아새끼 칼로 망한다..뽀한 말이지만 진리야...

과광 - 번개가 치고, 갑자기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지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해철이 억수 같은 빗속으로 뚜벅 뚜벅 사라져가고, 자신의 칼이 배에 꽂혀 죽어가는 지로에게 의무병들이 달려든다.

85. 상촌 마을 - 호박골 - 패잔병 / 비 / 日물

퇴각하는 월강추격대를 끝까지 쫓으며 시가전을 펼치는 독립군들, 곳곳에서 승전하며 함성을 지른다.
퇴각하는 병력과 뒤섞여 상촌 마을까지 쫓겨 내려오는 지로, 의무병들을 뿌리치며 주위를 둘러본다.

지로 : (일본어) 비파동 골짜기로 갔던 제1 기마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산야를 뒤 덮은 비안개. 앞을 분간하기 힘든 뿌연 시야.
 갑작스런 기상이변 속에 비파동으로 투입됐던 겐쇼와 제1 기마대 포수들이 지로와 잔존 병들을 적으로 오인하고
 총을 쏘기 시작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난사하는 총탄에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월강추격대 잔존 병력들.
 광기에 찬 지로가 겐쇼가 쏜 탄에 온 몸이 구멍이 나고, 겐쇼도 추격대 잔존 병들의 총을 맞고 숨이 끊어진다.
 이윽고, 비가 그치며 시퍼런 색을 드러내는 하늘.
 고통보다는 분노로 일그러진 지로의 눈에 독립군 상촌 훈련소의 모습들이 드러난다...SLOW.
 사격 연습에 쓰였던 표적판과 곳곳에 쌓인 탄피들.
 총검으로 얼마나 찔렸을지 모를 너털너털해진 상처투성이의 허수아비들.
 한 눈에 보아도 독립군들의 혹독한 훈련을 말해주는 수많은 흔적들.
 쿨럭이며 바닥에 엎어진 지로, 자존감이 처참히 뒤흔어진 굴욕적인 얼굴로 숨이 끊어지며,

지로 : (일본어)(피식) 그랬군...그랬어...우리가 사냥당한 거였어...

86. 굴짜기 중턱 / 낮

아라요시 : (일본어) 쫓쫓쫓~ 내 이럴 줄 알았다.

산책하듯 여유롭게 언덕을 오르는 아라요시.
 뒷짐을 떠 지고 아수라장이 된 곳을 내려다보고, 사랑살랑 다시 앞으로 돌다가 멈춰한다.
 웬 청모자를 쓴 허름한 농부 하나가 풀 더미에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다.
 농부와 힐끔 눈이 마주치자, 뿌지직 뽕뽕 민망한 소리만...

농부 : 속 시원하군기래...

아라요시, 무시하며 옆길로 걸어간다.

농부 : (OFF) 그 쪽두 막아췌디...

농부를 향해 돌아보는 아라요시.
 아까 그 구부정한 등허리에 때가 낀 손톱.
 바지춤을 올리고선 농부의 한 쪽 손에 아까 그 기다란 총이 곧게 들려져 있다.
 옆 수풀 언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수십 명의 독립군.
 그 한가운데 아라요시를 냉랭하게 내려다보는 자현.

아라요시 :

우뚝 서 있는 농부의 새카만 얼굴 속 눈빛만은 청명하고, 그 위로,

자막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 범 도』

87. 몽타주

산등성이마다 차례대로 화면 비추어가며,
장소, 장소마다 독립군의 모습이 온통 화면을 장악한다.
홍범도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네는 해철.
마침 자현과 독립군들에게 목이 잡혀 끌려오는 아라요시와 눈이 마주친다.

해철 : ...아라요시?...

아라요시 긴장하는데, 다가와서 손을 스윽 내미는 해철.
악수하자는 뜻으로 알고 엉겁결에 손을 내미는데,
해철의 손이 교차하며 아라요시 바지 속으로 쑥 들어간다.

아라요시 : !??

CUT TO
해철의 손바닥 위 붉은 경단.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현과 독립군들에게 끌려가는 아라요시.

해철 : 느들은 이게 문제디. (풀숲에 버린다)

88. 언덕 위 / 낮

언덕 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숨을 거둔 유키오의 시선으로,
저 멀리, 낙뢰가 떨어지는 하늘아래 패퇴하는 패잔병들이 보인다.
아직 살아있듯, 고여 있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흘러 떨어지는 마지막 유키오의 시선으로,
패잔병들의 모습이 아스라이 멀어지며...

자막 『봉오동 전투 - 일본군 사망 157명, 중상 200여명, 경상 100여명.
독립군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3명』

89. 언덕 봉우리 / 석양

언덕 봉우리 정상에 우뚝 선 홍범도와 독립군들.
해철 곁의 장하가 병구의 부축을 받으며 석양을 향해 서 있다.
목발을 짚고 선 장하의 절단 된 다리.
한 쪽 다리가 잘려 나갔지만 장하의 눈은 여전히 깊고 흔들림이 없다.

해철 : (OFF) 한바탕 폭풍이 불겁네다.

언덕 봉우리로 올라오는 자현과 춘희의 발걸음.

강한 바람에 그녀들의 머릿결이 흩날린다.

장하 : (OFF) ... 졸렬하게 보복하려 들 겁니다.

세찬 바람이 해철과 장하의 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해철 : ... 고향 땅으로 가는 바람이다...

언덕 꼭대기에 유골봇짐을 들고 선 춘희.

유골봇짐이 해철의 손에서, 장하의 손으로, 홍범도의 손으로 건네지고,

홍범도의 굵은 굳은살과 때가 낀 손끝에서 평화롭게 흩날리는 하얀 가루.

하얀 가루는,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산 능선의 독립군들을 쓰다듬고,

드넓게 펼쳐진 산야, 저 멀리 힘차게 뻗어나간 조선 땅의 산맥과 우뚝 솟은 봉우리들을 향해 날아간다.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장하...결국 참았던 울음이 쏟아진다.

모두 피워내자, 비로소 홍범도의 손에 남은 '천 조각'이 바람에 펼쳐지며 본모습을 드러낸다.

화면가득, 남은 가루를 피우며 펄럭이는 낡은 태극기.

홍범도의 어눌한 평안도 말씨를 끝으로,

홍범도 : 굴하디 말라. 이제 시작이다.

해철 : (장군을 살피며) 어디로 이동합니까?

홍범도 : (결연하면서도 또박한) 청..산..리.....

해철과 장하가 한 걸음 다가와 언덕 아래를 살피면 무수한 독립군과 백성들이 일렬로 늘어져,
수많은 (체코제)무기들을 청산리로 운반하는 장관이 연출되고 있다.

장하 : ...형...고마워.....형.....?

불러도 대답이 없자, 주변을 둘러보는 장하, 뒤를 돌아보지만 해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CUT TO

숲을 달리는 해철,

그 뒤로, 병구, 채수, 아가리, 길산등 부하 독립군들, 하나하나 그 얼굴, 얼굴들...

해철의 어깨에 굳게 메어있는 독립자금 상자.

(해철) : 아 새끼래 걱정 말라우, 형 다시 온다!!!!!!!

- 끝 -

[봉오동 전투에 관하여 독립신문에 실재 기록된 참고 자료]

<독립신문 1920-06-22, 제 85호>



독립군 승첩(獨立軍勝捷)

봉오동에서 적을 대파

6월 7일 접전에 관한 아군의 공보(公報)

6월 7일 북대륙 우리 독립군과 적의 접전에 관한 적의 보도는 별항과 같거니와 6월 20일 아군의 통신이 국무원에 도착되었으므로 임시정부 공보호외로 다음과 같이 발표되다. 이로써 보건대 적의 보도가 어떠한지 신용치 못할 것임을 알리라.

6월 7일 상오 7시에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00명이 북로(北路)사령부 소재지인 왕청현(汪淸顯) 봉오동(鳳梧洞)을 향하는 적군을...

6월 4일 오전 오시경 독립군 약 이십명은 강양동에 침입하려 하다가 동지에 정지하여 있던 적하사척후와 충돌하여 교전하다가 동지 대안 삼둔자에 둔하여...

오후 십시 무장한 십수명의 아군이 삼둔자북방고지에 지하야 적의 신미소대보초선 압을 습격하다 적의 증원대는 총성을 문하고 즉시 국경을 너머 도하하여 대안에 진출하여 신미소대와 가치 래습함에 아군은 안산방면으로 퇴하다.

<독립신문 1920-06-24, 제 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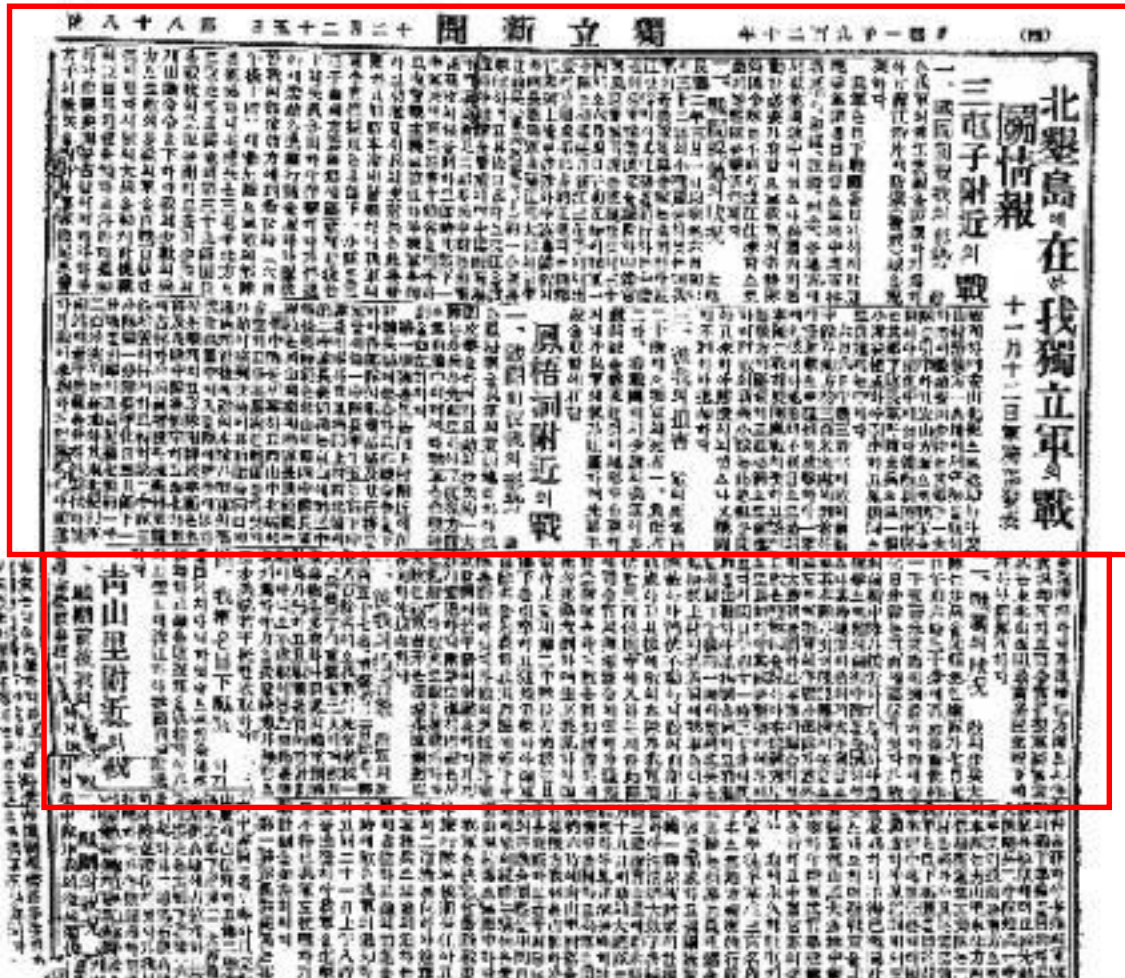
독립군 연전연승(連戰連勝)

6월 7일 봉오동에서 적군을 대파함은 기보와 여하거니와 본사는 왕청전에 관한 여좌한 지급통신을 금일 접수하다 기상세는 차호지상에 게재하리라.

북간도 왕청성현 봉화리에 주둔 중이던 독립군은 6월 6일 상오에 국경을 너머 잠입한 적군 오백과 충돌하여 이를 대파하고 패주케 하다.



<독립신문 1920-12-25, 제 88호>



북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의 전투정보(北嬰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일천구백 이십년 십일월십이일 군무부발표

삼둔자부근의 전

一. 전투전 피아의 형세

적은 아군의 도강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두만강연안에 방어(경계)선을 배열하다

아군은 목하전투를 목적하지 안코 전쟁준비를 목적함으로써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왕청, 훈춘, 각지방에서 모집훈련중이었스나 아국내에 활동할 필요가 유함으로 아군의 기습대와 전령대는 불절히 도강왕래함으로 적의 경찰대를 격파케 되다

二. 전투경과의 상황

대한민국이던 삼월일일 이래로 육월 초까지 삼십이회의 소전투를 하였는데 아군의 기습대와 전령대는 협동하여 도강할 시마다 기임무를 진행하는 중 왜적의 순경대왜정탐을 격살하며 왜관서급순사파출소를 파괴한 것이 삼십사이오 육월사일 오전 오시에 아군일소대는 화룡

현 월신강 삼둔자에서 출발하여 종성군 북방 약오리 되는 동군 강양동 상류로 도섭하여 해지 왜적의 보초장현병군조복강삼태랑의 인솔한 적병(현병순사병정)약일소대를 격파하였고(해철의 초반 전투 묘사) 기후 일모함으로 강을 도환하여 적정을 경계이던 중 왜적남양수비대장 신미이랑보병중위는 화룡현 전패의 보를 문하고 즉시 기부하 일중대병과 현병순사 십여명을 인솔하고 복수전주의로 도강하여 아군을 향하고 전진할새 아의 수삭병은 차를 발견하고 즉시 본대에 경보하니 아군의 사령관 최진동은 기부하 일소대를 삼둔자 서남방 음폐지에 은폐케 한 후 약간의 병원을 출하여 양격하다가 양퇴하매 왜적은 추격행동을 취하여 은복한 아의 부대전방에 도착할 시(육일오후 십시)에 급사격으로 적의 부대를 파멸하니 기잔병은 삼둔자 북방으로 패주하고 왜적의 제삼십구사단장으로 전패의(삼둔자 전투) 급보를 문하고 안전소좌의게 출동명령을 내려 아의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다수의 군을 백전백파한 것이 반다시 적의 대병을 동케 한 도전의 원인이 된 줄을 예하고 차라리 퇴각하여 작전요지를 점함이 가하다 하여 약간의 후병을 불러 부대후미를 경계케 하며 안산 북편으로 퇴각하여 안산촌락후방 일고지에서 수세를 취하다 시에 왜적안전소좌는 기부하 일대대를 인솔하고 안산방면으로 아군을 향하여 전진중이었다 왜적신미중위는 기부하 패잔군과 보충병으로 일개소대를 편성하여 인솔하고 봉오동으로 전진하는 중이다

육월육일 오후 삼시반에 적의 전위중대가 전방 약삼백미 돌처에 도착하자 급사격으로 맹렬히 공격하여 일거에 타파하다 지형이 불리함으로 적의 본대는 감히 전개응전치 못하고 해촌락후방에 은폐하고 봉오동으로 전진하려던 적의 신미소대는 급보를 듣고 와서 응원을 하였으나 전투에 또 불리하여 퇴각하다.

三. 피아의 손해

敵의 사자 百二十餘이오 我軍의 사자 一, 부상자 二라, 右戰鬪에서 소수의 아군이 다수의 적을 격파한 것이 지형도 유리하거니와 아군의 기가 왕성하며 선제수단을 취함에 재함

봉오동부근의 전

一. 전투전 피아의 형세 적은 봉오동을 아군의 책원지라 하여 포위공격을 하려 하고 적의 보병 약 일대대는 보병을 선두로 하여 고려령방면으로 전진중이며 따라 아군은 작전계획을 기록과 같게 하다.

제1연대를 봉오동 상촌 부근에 재한 연병장에 집합하고 작전명령을 하(下)하여 각 부대의 전투력 및 임무를 정찰새 제1중대장 이천오는 부하중대를 인솔하고 봉오동 상촌 서북단에, 제2중대장 강상모는 동산에, 제3중대장 강시범은 북산에, 제4중대장 조권식은 서산 남단에, 연대장 홍범도는 2개 중대를 인솔하고 서산 중북단에 점위(占位)하고, 각기 엄밀한 전비(戰備)하였다가 적이 내도할 때에 그 전위를 동구(洞口)에 통과케 한 후에 적의 본대가 아군이 잠복한 포위중에 입(入)할 제에 호령에 의하여 사격케하고 연대 부장교 이원은 본부급 잔여중대를 영솔하고 서북 산간에 점위하여 병원(兵員) 증원과 탄약 보충, 식량급식에 임케하고 특히

제2중대 3소대 제1분대장 이화일(시나리오속의 장하)로 그 부하 1분대를 인솔하고 고려령 북편 약 1천 2백미터 되는 고지와 그 동북편 촌락 전단에 약간 병원을 분(分)하여 잠복했다가 적이 내도하거늘 전진을 지체케 하다가 봉오동 방면으로 양패퇴각(거짓으로 패한체 하고 뒤로 물러남)케 하고 사령관 최진동, 부관 안무는 동북산서간 최고봉 독립수하(獨立樹下)에 재하여 지휘케 하다.



二. 전투의 상황(商況)

敵의 보병대대는 보병을 선두로 한 중대가 칠월칠일 오전 육시삼십분에 고려령서편 약일천 오백미돌지에 도착될 시간에 이화일분대는 서면에 잠복하였다가 적의 전위중대가 접근하기를 기다려 급사격으로 적의 전위중대를 전멸하였으나 기시 지형이 적의게 대불리함으로 기본대가 밋쳐 전개응원치 못함으로 도로혀 아군의 양전소부대가 의외에 대승리를 득(得)하고 본대에 귀합하였고 적은 비파동을 경하야 유원진 봉안으로 퇴각하야 기대(其隊)를 정돈하여 가지고 다시 동일 오전 십일시삼십분에 동지를 출발하야 봉오동을 향하고 전진할새 동일 오 후약일시에 적의 침병은 봉오동상촌에 도착됨에 아군은 더욱 은폐하야 잠복불동하니 적의 전위가 통과하고 기후에 적의 본대가 아군잠복한 삼면포위중에 입하는지라 차제에 사령관의 지휘호령에 의하야 맹렬한 급사격을 하니 적은 망지소조하야 사자 사상자 도하야 生者 혼란하야 사산분주할새 제이중대장 강상모는 기부하를 인솔하고 맹렬추격하야 적군 백여명을 사살하고 기지점에 부하중대를 잠복하였다가 적의 응원대가 내도할 제에 약간발의 사격을 하다가 교묘히 잠퇴하니 양로로 진하던 적은 서로 난사하야 적화로 적을 사살케 하다(시나리오에 기술 되어 있다) 대패한 적군약간은 온성 유원진 대안을 향하야 퇴각하다

三. 피아의 손해수

적군의 사자 백오십칠명, 중상자 이백여명, 경상자 백여명이오 아군의 사자장교 일인, 병원 삼인, 중상자 이인이며 적의 유기물은 다유하나 아군의 치중예비타마가 無하고 차전투를 목적인 계획전이 아니오 불우전(不虞戰)이 됴므로 차(此)를 획치(獲取)키 위하야 역(力)을 비(費)할 여지가 無함으로 보병총약간정만 수취하니

四. 아군은 목하(目下) 전투(戰鬪) 하기를 목적(目的)치 아니하였슴으로 안전지(安全地)로 퇴각(退却)하고 敵은 패잔(敗殘軍)을 수습(收拾)하야 가지고 익일(翌日)에 도강(渡江)하야 아국내(我國內)로 패퇴(敗退)하다